

# GLOBAL HUF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GAZINE

2019 AUTUMN Vol. 105

## Cover Story

제43차 한국외대 모의UN총회

## Special Theme

HUFESan,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역량과 자부심으로 승부하다

## HUFES Talk

HUFES 특수외국어 교육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

## HUFES Topic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만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으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인재를 키웁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한국외국어대학교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

다양한 세상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형 글로벌 융복합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 전 세계 98개국 832개 대학/기관과 교류

# Global HUFS

2019 AUTUMN Vol. 105

## HUFSan,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역량과 자부심으로 승부하다

### SPECIAL THEME

- 02 **Cover Story** 제43차 한국외대 모의UN총회
- 04 **Special Theme** HUFSan,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역량과 자부심으로 승부하다
- 06 **Theme Interview** 통번역 전문가가 되고픈 이들에게 **최정화** 통번역대학원 교수  
COME TO HUFS, SEE THE WORLD! **장인탁** J&J회장 스페인어 76
- 12 **HUFS Interview** 독창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정창욱** 물리학과 교수  
나를 있게 한 오픈마인드와 도전의 힘 **이연향**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89  
드넓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 자신감 창업 동아리 '가이드(GUIDE)' 팀  
**이용현 / 이하림 / 안현정 / 오다영** 산업경영공학과
- 18 **HUFS Talk** HUFS 특수외국어 교육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  
**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 / **권윤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운영팀장 / **박민수** 인도어과 16
- 22 **Global Memoirs** 케냐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김한나**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
- 24 **I am HUFS** I am FC Holics, We are HUFS Holics **최윤주** FC Holics 주장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7
- 26 **Global Issue**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2019년 **이상훈**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HUFS NEWS

- 30 **HUFS Topics**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6명 배출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  
총동문회와 함께하는 '2019 HUFS x HUFS 동문 멘토링 워크샵'  
조정부, 제14회 대학조정대회 주관 및 TB남자 너클포어 부문 우승
- 34 **HUFS Today**
- 39 **HUFS Academies**
- 42 **HUFS Professors**
- 44 **HUFS Institutes**
- 46 **HUFS Books**
- 48 **CUFS News**

### ALUMNI & DONATION

- 50 **HUFS Alumni**
- 53 **HUFS Donation**



**Julien  
DERUFFE**  
주한 프랑스 부대사  
**Julien DERUFFE**  
The charge d'affaires of France to R.O.K

**43차 HIMUN 모의UN총회**

의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 디지털 통상 규범 모색'  
2019. 08. 10.(토) 오후 1시 SM타운 코엑스 아티움 3F

# 제43차 한국외대 모의UN총회(HIMUN)

지난 8월 10일(토)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아티움에서 43차 한국외대 모의UN총회(HIMUN)가 개최됐다. 한국외대 모의국제연합은 1958년 UN군축을 의제로 국내 최초의 모의UN & 외국어 학술 행사로 출발했으며, UN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범대학적 젊은이들의 학술의 장이다. 이번 총회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신(新) 디지털 통상 규범 모색'이라는 의제로 진행됐다. 급격히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현실의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100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UN 기본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UN 공식 6개 언어의 릴레이 통역을 진행해 생동감 넘치는 총회를 구현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총회 현장에 윤석만 서울캠퍼스 부총장과 민동석 총동문회장,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 오종진 국제교류처장, Julien DERUFFE 주한 프랑스대사관 부대사, Sripriya Ranganathan 주한 인도대사관 대사, Baasanjav Ganbold UN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 대표, 오주원 현마유평재단 사무국장이 발길을 더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 HUFSan,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역량과 자부심으로 승부하다

대한민국 제1의 글로벌 대학, HUFS.

45개 전문 외국어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이공학을 아우르는 글로벌 융복합 교육 덕분이다.

2019년 개교 65주년을 맞은 HUFS는 모든 분야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과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글로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탁월한 역량과 자부심으로 승부하는 HUFSan의 메시지를 전한다.



## 세상에 직접 도전하는 용기

외대가 가진 상대적 경쟁력은 외국어 교육과 지역학 연구에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어 실력이나 각 지역에 대한 학문적 지식만 갖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갖기란 어렵습니다. 기업가 정신 즉,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통해 직접 경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동문 역시 모교에서 익힌 외국어와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세계인과 직접 부딪히며 끊임없이 도전하였기에 지금 같은 많은 성공을 이뤄낸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 모교에서 수학하는 많은 후배 동문도 학문적 지식을 넓힘과 동시에 세상에 직접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기 바랍니다.

윤윤수 FILA GLOBAL & ACUSHNET HOLDINGS 회장 정치외교학과 66



## 틀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라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신은 도전입니다. 주위 많은 이들이 틀릴까봐, 실패할까봐, 잘 되지 않을까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리고,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최정화 통번역대학원 교수, 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 이사장





### 배짱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무엇보다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이가 '배짱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격언을 되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쉽게 만족하면 더 큰 산을 정복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독심을 기르기 바랍니다.

문대동 삼문그룹 회장\_스페인어과 57



### 글로벌 도전력, 남과 같아서 성공할 수 없다

삶과 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뇌하는 자세는 분명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인재로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모든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산은 산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것이고, 그곳까지 가려면 중간 중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이 따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의 꿈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박병철 에베레스트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회장\_무역학과 67



###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길이라면

한번 뜻을 세웠으면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여 뜻한 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외무 공무원은 여러 나라에서 살아 보는 기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 전통 그리고 풍물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외교관은 특히 우리 외대와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많은 후배가 외교관의 길에 들어서길 바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최종현 前 주네덜란드왕국 대사\_정치외교 76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만들어가는 힘

외대인의 원동력은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역량에 있습니다. 정형화된 길을 답습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외대인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호모과 도전 정신은 경제, 기술 등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아 성공하는 외대인의 잠재력입니다.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 선임의장



### 오늘의 나를 만든 열여덟번의 실패

삶은 늘 도전의 연속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면 못 이룰 일이 없습니다.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 실패했을 때 몰려 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 나 자신은 극복의 대상인 동시에 믿어야 할 존재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외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끊임없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엄홍길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_중국어 02



### 자신만의 독보적 콘텐츠를 가져라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을 다니면서 무엇보다 좋았던 건 외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경제, 법학, 역사, 정치, 보건·의료 등 사학 각 분야의 콘텐츠를 자유 자재로 다룰 수 있게 탄탄한 준비를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외국어라는 수단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콘텐츠를 쌓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자신만의 독보적 콘텐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현모 통역사\_통번역대학원 국제회의통역전공



## Theme Interview

---



“동반역은 실제와 전달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힘을 발휘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군의 소통 능력을 도구로 글로벌 시대의 삶이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통번역 전문가가 되고픈 이들에게

세계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 등재, 통번역 국제 학술지 공동 편집위원장 최정화 통번역대학원 교수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최정화 교수가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번역 국제 학술지 <포럼(Forum)>이

세계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돼 큰 이슈를 모았다.

최정화 교수를 만나 <포럼>의 스코퍼스 등재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번역 국제 학술지 <포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포럼>은 한국통역번역학회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후원을 받아 창간한 뒤 지금까지 출간하고 있는 통번역 학술지입니다. 프랑스 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ESIT)과 공동 발간하는 것으로 세계 유일의 동서양 공동 출판 국제 학술지입니다.故 다니카 셀레비치 교수와 통번역학 해석이론을 공동 창시한 파리 통번역대학원 Marianne Lederer 명예교수와 제가 공동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네덜란드에 있는 세계 최고의 통번역학 전문 출판사인 John Benjamins(JB)에서 연 2회 영어와 불어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 **<포럼>이 세계 최대의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에 등재됐습니다.**

<포럼>은 올 5월 세계 최대의 인용 색인 데이터베이스인 스코퍼스에 등재돼 주목받았습니다. 스코퍼스 심사위원회는 스코퍼스 등재 결정 이유에 대해 '명확한 초록, 높은 언어 수준,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내용, 학술적으로 높은 수준의 콘텐츠, 영어와 불어로 논문이 기술되고 초록이 번역돼 가독성을 높이는 데 기여, 논문 내용이 명확한 목표와 정책에 부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스코퍼스 등재는 통번역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로는 우리나라 최초이고, 아시아 최초이기도 합니다. 이는 <포럼>이 명실공히 통번역학 분야의 국제 전문 학술지의 반열에 올랐음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럼> 편집 사무총장인 우리 대학 김정연 교수가 이번 스코퍼스 등재에 실무를 총괄하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 **공동 편집위원장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실제만 있으면 공허하고 이론만 있으면 초라하다'는 말이 있듯, 이론과 실재가 잘 어우러지도록 더욱 노력하고 경주할 것입니다. 통번역학은 이론

과 실재가 어우러진 분야인 만큼, 앞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러 동료·후진 통번역사들이 이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아시아에서 통번역학을 선도하는 현재 한국의 위치가 지속·강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 **외대인의 남다른 역량과 자부심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외대인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다른 역량과 자부심을 발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대의 교육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론과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노하우를 체득하도록 중점을 둔 외대의 교육이 가장 중점적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는 외국어 소통 능력에 바탕한 열린 사고를 지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큰 몫을 한다고 여깁니다.

● **통번역대학원 교수로서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상시 통번역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는 점은 '소통에만 능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소통에만 능한 사람이 되는 대신 발군의 소통 능력을 도구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 가는 동시대인과 미래의 새싹들의 삶이 질이 나아질 수 있는데 기여하는 인재가 되기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 **통번역대학원 교수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통번역은 실재와 전달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힘을 발휘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달 능력이 뛰어난 통번역사가 실재를 더욱 개선하고 향상시키는데 일조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라도 함께하고 싶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핵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제 앞으로의 계획이자 큰 바람입니다.

## COME TO HUFS, SEE THE WORLD!

도미니카공화국 한인 기업인 장인탁 J&J 회장이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올 초 한국외대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상한 장인탁 J&J 회장이 우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라면왕' 장인탁 회장이 모교 후배들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인상 깊다.

● 지난 2월, 한국외대 총동문회 특별공로상 '자랑스러운 외대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6월 4일, 교수학습개발원 202호를 '장인탁 강의실'로 헌정하는 헌정식에 참석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외대 총동문회로부터 '자랑스러운 외대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내가 받아도 되나'였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과분한 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인탁 강의실 헌정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척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헌정식 당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교문을 들어서는데, 교문 위에 '장인탁 강의실 헌정식'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모교 사랑, 후배 사랑으로 보답해나가겠습니다.

● 한국외대 방문이 오랜만일 텐데, 세계 속의 대학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교를 직접 보시니 어떻습니까?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37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모교입니다. 그사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스페인어과 재학 시절 캠퍼스를 거닐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거나 토론하던 기억이 납니다.

● 현재 이끌고 있는 J&J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J&J는 1993년 설립한 수출입 기업입니다. 자체 라면 브랜드 '초이스'를 비롯해 알로에 음료 등 국내 식음료 관련 제품을 도미니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200명 가량 되고, 1년에 약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 J&J의 라면 '초이스'는 도미니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도미니카 국민의 90% 이상이 알 정도로 유명합니다. 도미니카 시장에서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상사 도미니카 주재원으로 나간지 1주일 만에 회사가 부도나 사업을 시

작했습니다. 당시 라면 사업을 한다니, 주변 사람 대부분이 '더운 나라 사람들이 뜨거운 라면을 먹겠느냐'며 만류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3~4년은 대형 슈퍼마켓에 입점하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즈음 도미니카의 유명 엔터테이너를 모델로 내세워 신문에 큼지막하게 광고를 낸 결과 매출이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러던 중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컵라면 아래쪽의 비닐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는 바람에 그 사이로 벌레가 들어가 사업에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한인 회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당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간추린 도미니카 역사'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한인들에게 배부한 일입니다. 도미니카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좀더 알면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책자에 한인들도 도미니카 역사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 각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가로 거듭나기 꿈꾸는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우연찮은 기회에 서른이라는 이른 나이부터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는 넓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분명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은 '청년 실업'이란 말이 있을 만큼 취업하기 어려우니, 더 넓은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의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비즈니스맨이다 보니 무엇보다 회사를 더욱 열심히, 잘 키우는 것이 목표이고 도미니카의 유능한 청년이나 젊은이와 함께 노력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는 넓습니다. 글로벌 전문가를 꿈꾸는 후배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 분명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청년 실업이란 말이 있을 만큼 취업하기 어려우니, 해외로 눈을 돌려 취업의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 H



# F

# HUFS INTERVIEW

비휘발성 메모리 특성 세계 최초 발견 및 SCI 상위 1%  
저널에 논문 게재  
정창욱 물리학과 교수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  
이연향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89

'2019 서울통합이동서비스(MaaS) 해커톤' 대상 수상  
창업 동아리 '가이드(GUIDE)' 팀  
이용현, 이하림, 안현정, 오다영 산업경영공학과



# U

# S



독창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한국외대 물리학과 정창욱 교수 연구팀이 2가지 물질에서 비휘발성 메모리 특성을**

**세계 최초로 발견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를 주제로 한 논문은 SCI 상위 1% 저널에 게재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들이 이뤄낸 성과의 과정과 비결을 정창욱 교수를 만나 들어 보았다.**

- **최근 SCI 상위 1% 저널에 논문을 게재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최근 한일 경제 전쟁에서 한국의 기본 소재에 대한 산업 및 연구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항스위칭기억소자는 기존 메모리인 DRAM, SRAM, FLASH에 비해 집적화, 동작 스피드, 비휘발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보편적 메모리라고 기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가장 주목받은 뇌모방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도 핵심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연구팀은 SrFeOx과 SrCoOx에서 저항스위칭 메모리 특성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 이에 대한 나노 수준의 작동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 연구에서는 우리 연구팀이 세계적 독창성과 선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세한 저희 연구실에서 독창성과 꾸준함, 공동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얻었기에 매우 행복합니다.

- **이번 논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번 논문의 핵심은 SrCoO2.5와 SrFeO2.5 물질에서 저항스위칭기억소자 특성을 발견할 당시 제안했던 저항스위칭의 근본 작동 원리를 나노 수준에서 분명하게 규명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첨단 가속기 연구소에서 나노 수준의 분광기를 이용했습니다. 저항스위칭의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산소이온이 빈자리에 필라멘트 형태로 채워지고 다시 비워지는 과정을 통해 이 물질이 도체와 부도체간의 상전이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 **논문의 교신저자로 1년 6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논문의 제1저자인 Venkata Raveendra NALLAGATLA 군이 지난 2016년 10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WOE23 국제학회에서 우리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새로운 저항스위칭 물질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우리 그룹의 연구 내용을 본 독일 Fz Jülich 연구소의 소장 Rainsier Waser 교수가 저를 독일로 초대했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저항스위칭 물질을 발견한 3가지의 전략을 중심으로 초청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강연을 마치자 Rainsier Waser 교수가 중앙의 대형 테이블을 손등으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곧 모든 청중들이 따라 두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그룹의 연구 결과와 전략을 세계적 석학으로부터 인정받고, 두 그룹간의 공동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쾌거가 가능했던 것은 저의 박사 제자 한 사람 덕분입니다. Prof. Octolia Togibasa는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제 실험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던 기간에 SrCoOx의 저항스위칭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또한 투과전자현미경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인 서울대 재료공학부 김미영 교수가 저희 같은 작은 그룹이 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오랫동안 공동 연구로 도와준 점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항스위칭과 뇌모방메모리 연구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서울대 재료공학

**비휘발성 메모리 특성 세계 최초 발견 및 SCI 상위 1% 저널에 논문 게재 정창욱 물리학과 교수**

부 황철성 교수의 오랜 관심과 지원, 공동 연구에도 감사드립니다.

- **외대인의 남다른 역량과 자부심의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외대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중국에서 뛰어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학원에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물리학과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그룹은 미국, 독일, 프랑스와 6개월 이상의 방문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논문 관련 성과는 이같은 외대의 저력이 밑바탕이 돼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물리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남이 한 일을 따라가는 연구 및 노력은 결국 독창적인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과정임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쉬운 길만 따라가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 지금 처한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연구 환경에서도 독창성과 꾸준함을 무기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이번 논문의 후속 연구를 통해 이 물질에서 스위칭 메커니즘을 더 잘 이해하고 스위칭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우리나라의 기본적 소재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동문 특별강연'**

**연사로 나선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통역을 맡아온 그가 통역사로서의 삶을 들려주었다.**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

**이연향**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89

● 우리나라 외교부에는 통역국이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통역국장으로서 국가에 통역국이 있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해주세요.

외교부에 전문 통역사가 없으면 외교관이 직접 통역합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통역하는 외교관이 관련 이슈를 무척 잘 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단점은 통역사가 양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통역국을 설치하지 않으면 통역사가 계속 바뀌고, 관련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통역하게 됩니다. 언어는 경제,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에 통역국을 설치하는 것은 언어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는 국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외교 번역이나 정부 정책 번역은 항상 살얼음 걷는 기본으로 하게 되는데, 통역 교육시 이와 관련해 어떤 점을 강조합니까? 또한 방송 등에서 통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통역사로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교 통역과 일반 통역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통역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외교 통역은 'Yes'와 'No'가 없고 항상 그 중간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다. 'Yes'와 'No'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그 뉘앙스를 잘 전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알맹이라면 곁에 있는 것이 포장인데, 외교 통역에서는 알맹이가 포장인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외교 통역의 경우 예전에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했지만, 요즘에는 직역해서 번역하듯 하기도 합니다. 통역

과 번역의 차이는 글과 말이 아니라 즉시성입니다. 통역을 듣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통역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통역에 대해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통역사보다 더 잘 통역할 수 있는지, 지금의 통역사보다 더 나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지, 현재 통역에 대안이 있는지 등을 묻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수용하면 되고, 쓸데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어느 통역사들과 다른 자신만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오픈마인드를 중요하게 여기는 점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어떻게 영어를 가르쳐야 하느냐'고 묻는 학부모에게 '언어를 배우는 것을 사고를 넓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오픈마인드를 강조해 왔습니다. 도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통역사로 활동하다 미국 몬트레이대 통번역대학원으로, 몬트레이대 통번역대학원에서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교수로 간 것 등 저는 늘 하지 않았던 일을 하려 했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마다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일했던 것, 누군가 부탁했을 때 항상 들어주었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들려주세요.

저는 일은 일이고 자신의 삶이 따로 있어야 한

다고 여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가족, 자신이 좋아하는 것, 일을 잘 소화시켜야 자신의 분야에서 조금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계속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다른 일을 찾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 통역국에서 일하는데 할 것이 많습니다. 통역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통역 분야와 통역 시장이 계속 달라지는 만큼 통역사들도 이에 적응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통역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통역사를 꿈꾸는 모교 통번역대학원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번역대학원에서의 2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시절 물불 가리지 않고 공부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대학원 시절을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있게 한  
오픈마인드와 도전의 힘



드넓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  
자신감





**한국외대 산업경영공학과 이용현, 이하림, 안현정, 오다영 학생이 서울시와 티머니가 주최한**

**'2019 서울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은 그들에게 '세상에 나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2019 서울통합이동서비스(Maas) 해커톤' 대상 수상**

**창업 동아리 '가이드(GUIDE)' 팀**

**이용현, 이하림, 안현정, 오다영 산업경영공학과**

● 서울시와 티머니가 주최한 '2019 서울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대상을 축하합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먼저, 졸업(캡스톤) 프로젝트로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담당 교수님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산업경영공학과 선배에게 감사드립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팀원 4명이 같이 고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해낸 역할이 합쳐져 하나의 좋은 결과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대상으로 선정해준 심사위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이번 대회에서 제안한 '교통약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길 안내 서비스'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길 찾기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네이버맵' '카카오맵' 서비스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는 길의 경사도가 높거나, 인도의 폭이 좁거나, 길에 장애물이 존재하면 통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환승할 때 환승 경로 또한 일반인과 달리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탑승해야 하고, 심한 경우 아예 밖으로 나가 다른 호선의 지하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 만든 휠체어 타는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길 안내 서비스입니다.

● 이 대회 도전 계기부터, 어려웠던 점, 대상 수상까지 과정을 들려주세요.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학교 게시판에서 '2019 서울통합이동서비스 해커톤' 개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대회는 교통 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대회로 '신기술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 활성화 제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방법 제시' '대중교통 편의증진 방법 제시' 3가지 주제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팀이 진행하던 캡스톤 프로젝트가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방법 제시' 주제와 맞았고, 저희 팀의 주제가 큰 대회에서 알려져 더 널리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참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서비스를 만들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교통약자를 위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어려웠습니다. 이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어진 공공 데이터를 교통약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 대회를 준비하고 치르는 동안 학과나 동아리에서 도움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경영공학과 학생은 졸업하려면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팀마다 지도교수님을 배정받습니다. 지도교수님은 매주 미팅을 통해 저희 팀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지도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저희 팀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담당 교수님이 저희 팀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지도해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대상 수상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진정으로 저희가 처음 목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이동권의 확장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전해줬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주)티머니에서 저희의 시스템을 서비스화해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할 때 오래 기다려서 타야 하는 택시 대신 대중교통 길찾기를 통해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이동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저희 Guide 시스템이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세상에 나아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무엇입니까?

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저희 시스템이 실제 서비스화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수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스템이 사회에 나올 수 있게 서비스화하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저희 팀 4명은 한국외대에 입학하면서부터 키워온 시스템 기획 및 컨설팅 전문가, 패션 쇼핑몰 CEO, 시스템 개발자, 데이터 어널리틱스 전문가라는 꿈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Guide 시스템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노력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 HUFS 특수외국어 교육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

**HUF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돼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을 개설했다.**

**한 나라의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에서 이렇게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HUFS 특수외국어 교육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영훈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아시아언어문화대 학장),**

**권윤기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운영팀장, 박민수 인도어과 학생이 이야기나눴다.**

권윤기 특수외국어란 국가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어입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아랍어 등 12개 언어, 유라시아 지역의 카자흐어 등 7개 언어, 인도·아세안 지역의 힌디어 등 14개 언어, 유럽 지역의 폴란드어 등 18개 언어,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어 등 2개 언어 등 모두 53개 언어입니다.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것을 기초로 2017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1차 5개년(2017년~2021년)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중 하나가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선정이었는데, 지난해 우리 대학과 부산외대, 단국대가 사업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대학은 총장 직속 기구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을 설립했고, 11개 특수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1개 특수외국어는 터키어, 이란어, 스와힐리어, 우즈베크어, 몽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입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주요 사업은 11개 언어의 학부 교육 내실화 및 교육과정 조정, 특수외국어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국비 지원 등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비 지원이 쉽지 않아 운영하기 힘들었던 프로그램들이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특수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관심 수준을 넘어 특수외국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국가의 의무라 판단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운영·지원합니다. 프랑스 이날코대, 미국 국방외국어대, 중국 북경외국어대, 러시아 모스크바대, 일본 동경외국어대와 오사카외국어대 등이 대표적이죠. 우리나라가 지금이나 이렇게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지원을 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합니다.



고영훈 릴레이·인도네시아어과 교수(아시아언어문화대학장)

한국외대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콘텐츠나 시스템 등 관련 축적물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닌 외부인에게 특수외국어 가르치는 것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훈 제가 우리 대학에서 전임으로 강의한지 25년 됐는데, 이번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탄렘(tandem) 활동, 교재 및 앱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탄렘은 원어민 화자 유학생과 멘티-멘토가 돼 1:1로 언어 및 문화 교환을 하며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는 방식인데 학생들에게 크게 도움됩니다. 지난해 우리 학과에서 만든 '뉴스인도네시아'라는 앱 역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을 통해 일반인에게 특수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지난 학기 동대문구청과 함께 '일반인을 위한 인도네시아 강의를 10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수강 신청한 40명 중 30명이 졸업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특수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일반인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앞으로 일반인이 특수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민수 저는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의 가장 큰 가치는 특별한 교수진이라고 합니다. 인도어과 교수님들은 영어로 된 교재로 힌디어를 배우셨지만, 저희는 인도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힌디어를 배운 교수님들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많이 가르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문법과 작문, 회화 등 세분화된 커리큘럼으로 인해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할 법하다가도 언어를 다층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고영훈 우리 대학은 단지 언어만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솔직히 언어만 떼어놓고 보면 해당 국가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공부를 통해 그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이런 대학이 없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현재 외국학

이 쇠퇴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외대의 특수외국어 교육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이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민수 과거 대항해 시대에 세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21세기 대항해 시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이 작은 공간에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모두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적, 기업적 차원에서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실정이지요.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은 해외 진출에 있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은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엿보게 해줍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인도에서 1년 동안 살다 왔습니다. 그때 인도의 가능성을 봤고, 인도를 넘어 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국외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코이카(KOICA) 파키스탄 인턴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분리되기 전까지 한 나라였고, 파키스탄어인 우르두어는 힌디어랑 표기만 다를 뿐 말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당시 저는 인도 전공자로 힌디어뿐만 아니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국제 개발 협력의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외대에서 준비를 마치고 항해를 떠난 행운아였습니다.

**권윤기**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이 꼭 필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과 인도 등과의 교류 및 협력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개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교역량을 크게 성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 정



우리는 대한민국에 국한된 작은 공간에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모두 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에 있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은 지역 전문성을 활용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엿보게 해줍니다.

박민수 인도어과 16

책인 '신남방 정책'을 발표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신남방에 속한 나라 대부분이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학이 특수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특수외국어학과를 개설·운영하는 4년제 대학은 8곳으로 모두 33개 언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대학이 27개 학과로 가장 많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학생들이 2학년에 올라가 언어를 선택합니다. 1학년 때부터 언어와 지역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춘 대학은 우리 대학뿐입니다.

**고영훈** 우리 대학은 지금까지 특수외국어 교육을 잘해 왔습니다. 앞으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콘텐츠나 시스템 등 관련 축적물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 학생이 아닌 일반인에게 특수외국어 가르치는 것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인이 특수외국어에 관심을 갖게 돼 한국외대의 특수외국어가 더 널리 알려지면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며, 결국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보면 젊은 학생들에게 재밌는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게 교수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디바이스를 갖고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또한 제가 우리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립트 러닝(거꾸로 수업)을 하는데, 플립트 러닝을 하는 반과 그렇지 않은 반을 조사한 결과 플립트 러닝을 하는 반의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윤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 교육은 앞으로 시장의 논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은 한국외대의 절대적 고유

특수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은 한국외대의 절대적 고유 가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 고유 가치를 훼손할 수 없게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대는 특수외국어와 지역전문가 양성에서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윤기 학부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운영팀장

가치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 즉,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접근해 고유 가치를 훼손할 수 없게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외대는 특수외국어와 지역전문가 양성에서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지 말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어 교육과 관련해 한국외대의 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은 지적 재산권으로 재판매할 수 있고, 시장성 또한 충분하므로 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박민수** 저는 학생 입장에서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특수외국어를 쓰는 나라는 현재 많이 성장하고 있는 곳이므로 급변하는 변화를 따라잡으면서 지역학과 어학을 같이 융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을 알려면 언어가 수반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역사, 문화, 사회환경 등을 함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학과 어학을 이분법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지역학과 어학을 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처럼,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좀더 편안하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원에 진학할 때 장학금 혜택 같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고영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이 연착륙했고 올해 더 공고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 교육이 더욱 발전하려면 교수들과 동문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외국어 사업은 어학이나 문학 등 외국어 전공 교수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외국어학과 관련 교수가 다같이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은 언젠가 끝납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특수외국어 관련 사업 중 한 가지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동문들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

면 무엇보다 동문들이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민수** 학생은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도어과 학생으로서 인도에 관해 공부하면서 '나에게 인도는 연인이 아닌 부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연인은 헤어질 수 있지만 부부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따르니까요. 친구들 중 특수외국어를 쓰는 나라를 두고 '딴고 쳐박해서 싫어' '못 사니까 가능성이 없을 거야'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외국어나 관련 지역학 부분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정체성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특수외국어 나라를 '나와 부부 같다'고 생각하면 공부가 좀더 재밌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권윤기** 학교는 국가의 정책 변화 같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 등 국가에서 추진하려는 정책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 필요합니다. 국고 사업을 통해서든 학교 동문 장학금을 통해서든 특수외국어과 학문 후속 세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이번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사업의 가장 핵심인 표준 교육과정 만들기를 잘 해내는 것입니다. 표준 교육과정 만들기는 이번 사업에 선정된 11개 언어를 유럽식 평가 모델을 참조해 한국형으로 만드는 것이며, 올해부터 기본 교재가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공부하는 교재를 한국외대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우리 대학의 특수외국어를 살리는 또 하나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2019 KF(한국교류재단)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참가기

케냐와 한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어

김한나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김한나 학생은

‘2019 KF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를 통해 케냐에 한국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는 단순히 케냐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과 케냐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시작된 나의 공공외교

흔히 우스갯소리로 ‘외국에 나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말한다.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나는 이 말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 있다.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직접 한국 전도사 역할을 해봤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한류의 영향이 크지 않았고,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매우 낮았다. 그 마을의 미국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분단 국가’라는 사실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아이들에게 2NE1의 춤을 가르치고, 우리 전통 웃인 한복을 보여주고, 한국에도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있다는 것을 들려줬다. 친구들이 한국의 춤을 따라 하고 한국 노래를 어설프게나마 부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나의 첫 공공외교 경험이다.

그 뒤로 나는 공공외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공공외교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됐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을 통해 한국교류재단에서 지원하는 ‘2019 KF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공고를 접했고, 주저 없이 마음 맞는 학생들과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구상·지원했고 당선됐다.

우리 팀은 Tembea Duniani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4가지를 새긴 축구공과 지구공을 활용해 케냐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영토를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7월 6일(토)~25일(목)까지 3주 동안 카지야도, 나이로비, 뭄바사 지역을 돌면서 10개의 학교와 고아원, 관광객들과 현지인들이 많은 바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모두 4833명에게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케냐에서 한국의 역사와 영토 알리는 프로젝트 진행

나는 교육을 진행하려 학교를 처음 방문했을 때 잔뜩 긴장한 채로 갔다. 케냐 학생들이 ‘나라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우리를 반겨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케냐 학생들은 우리가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게다가 무슨 질문을 하면 서로 앞다투어 손을 들어 답했다.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우리 수업에 집중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끝없는 질문 세례를 했다. 학생들의 학구열이 넘쳐 시간이 부족한 탓에 항상 아쉬운 마음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단, 그때까지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을 일깨워주지 않았을 뿐이었다.

물론 교육 환경은 열악했다. 종이와 펜을 가진 학생은 절반이 되지 않았고, 작은 책상 하나로 학생 3명이 함께 썼다. 심지어 책상이 없는 학교도 있었다. 교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오로지 햇빛에만 의지해 수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코끼리가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 반쯤 무너져버린 건물도 있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공부했고, 한국의 발전사를 함께 보며 경제 발전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현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교육의 의미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이 확실했고 열의가 매우 뚜렷했다. 11명의 선생님 중 6명을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고용한 엔요노르 학교, 서울의 100년 전 사진을 보고 케냐와 다를 바 없었다고 놀라며 케냐의 미래를 이야기하던 안 나시코이 학생, 직접 만든 팔찌를 우리에게 손수 채워준 올마피테트 학교의 학생들까지 모두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I am FC Holics, We are HUFS Holics



**‘FC Holics’는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여자축구팀이다.**

**최근 치러진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축구 클럽챔피언십 2019’ 1차 전국 예선에서 3등을 거머쥐었다.**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아쉬움보다 기쁨이 더 크다고 말하는 최현주 주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FC Holics 주장**

**최윤주**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7

## HUFS를 대표하는 축구 중앙 동아리

‘FC Holics’는 지난 2008년 국제스포츠레저학부 안의 학회로 출발했다. 학부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던 중 2015년 중앙 동아리로 바뀌었고, 현재 모두 25명의 학생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FC Holics의 주장인 국제스포츠레저학부 17학번 최윤주 학생은 “FC Holics는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여러 경기에 출전하는데, 국제스포츠레저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구성돼 대표성이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 다른 학부나 학과의 여학생까지 더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발전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해져 학부 내 학회에서 중앙 동아리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FC Holics의 대표적 활동은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샤컵’과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 참여다. 샤컵은 서울대 여자축구부에서 주최하는 대학교 여자축구 동아리 대회다.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재정후원하는 대회로 이를 통해 대학 최강 클럽팀을 가린다. 지난해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가 주최가 돼 여자 축구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과정에서 FC Holics가 크고 작은 도움을 줬다.

“지난해 5월 우리 대학 국제스포츠레저학부에서 ‘제1회 HUFS WOMEN’S CHAMPIONSHIP’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대학여자축구클럽연맹과 협약을 맺어 축구 대회를 진행한 거죠. 모두 15팀 2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큰 대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홈팀이다 보니 학부를 도와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했습니다.”

# I am

## 전국 예선 3등의 주역 골키퍼 아드리야나

FC Holics의 가장 최근 활동은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 2019'다. FC Holics는 지난 8월 23일(금) 1차 전국 예선 결승 경기를 두고 한체대 FC천마와 맞붙어 패배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최현주 주장은 패배로 인한 아쉬움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회상했다.

“사실 2019학년도 2학기는 FC Holics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한민철 코치님은 동일하지만 주장이 저로 바뀌었고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 본격적으로 대회 준비를 한 기간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치님과 선수들 모두 '준비는 덜 됐지만 그래도 나가 보자' 하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했는데, 하다 보니 결승 경기를 앞둔 상황까지 갑니다. 한체대 FC천마와의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5점을 내주고 패했지만 크게 아쉽지 않습니다. 크고 중요한 경기에 참여하면서 긴장감을 느껴본 것 자체가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윤주 주장은 이번 대회의 골키퍼였던 아드리야나 선수의 활약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드리야나 선수가 굉장히 선방했고, 나머지 선수들이 아드리야나 선수를 믿고 수비와 공격을 펼치다 보니 경기가 잘 풀렸던 것. 그가 아니었으면 FC Holics가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 2019' 1차 전국 예선에서 3등이라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거라는데 이견은 없다.



FC Holics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최윤주 주장은 “바로 눈앞에 있는 10월 5일(토)~6일(일) 열리는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 2019' 2차 전국 예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1차 목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팀의 이미지를 '강팀'으로 바꾸고 싶다는 속내를 비쳤다.

“KUSF 축구 클럽챔피언십 2019' 1차 전국 예선을 치르기 전까지 우리 팀의 이미지는 '약팀'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팀들이 우리 팀을 보고 'FC Holics는 강하다' '아주 열심히 준비해야 FC Holics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 1차 예선을 통해 코치님을 비롯한 선수들 모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해진 만큼, FC Holics가 약팀이 아닌 강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또한 선수들이

경기를 이기면서 얻는 기쁨과 짜릿함을 더 많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인터뷰 말미, 최윤주 주장은 FC Holics를 잘 모르는 학우들에게 FC Holics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그의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진심 어린 메시지도였다.

“여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축구를 비롯한 팀스포츠를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FC Holics를 통해 국민 스포츠이자 팀스포츠인 축구를 접함으로써 거기서 얻는 기쁨이 뭔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단순히 수업을 같이 들으며 느낄 수 있는 유대감이 아닌 운동하면서 느낄 수 있는 끈끈함을 느끼기 바랍니다. 게다가 우리 팀의 절반이 외국인 선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축구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간혹 축구를 처음 하거나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아리 가입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FC Holics는 2군과 1군으로 나눠 훈련한다. 축구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2군 훈련을 통해 기본기와 축구에 대한 감을 익힌다. 그 뒤 1군에 들어가 팀 훈련과 전술 훈련, 포메이션(팀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정한 수비 및 공격의 대형) 훈련을 한다. 축구에 관심 있는 여학생이라면 무조건 FC Holics의 문을 두드리고 볼 일이다.

출릴 수 밖에 없는 축구  
그리고, FC Holics

##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2019년

아마도 2019년은 훗날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된 해로 기억될지 모르겠다.

한일 관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역사 문제에 의해 촉발된 한일 갈등이 처음으로 경제 문제,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졌고, 나아가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여행 자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상훈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 한·일 갈등의 구조화

전후 특히 냉전 붕괴 후의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한일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지만, 역사 인식의 문제, 전쟁 책임의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갈등 요인이 부상하면 우호적인 분위기는 바로 냉각되어 버리는 패턴이 양국 사이에 고착화되어왔다는 의미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갈등의 배경에는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그 유산으로서의 과거사 청산에 기인하는 양국 국민의 감정, 외교 문제로 확산되기 쉬운 역사 인식의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독도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은 매년 주기적으로 한일 관계의 현안으로 부상하는 문제다. 따라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로써 정착되었기 때문에 양국에 어떠한 정권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 임계점을 넘어선 갈등

어떠한 정권도 한일 관계를 협력적이고 우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2019년의 여름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물론 2019년 한일 양국의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갈등도 시작은 역사 문제였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문제시하여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파급되었다. 나아가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발표하여 역사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 속에서 일시적일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일상화되어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 문제는 어느 정권이 등장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화된 문제라 하더라도 경제 문제나 안보 문제는 양국의 정치 리더가 해결해야만 하며, 그러한 문제는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정치 리더가 관리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를 가져온 문제인 정권이나 아베 정권은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상대국이 무조건 항복을 할 때까지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양국 정부가 정치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임계점을 크게 넘어섰다는 느낌조차 든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수습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반일과 혐한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것은 다름 아닌 양국의 정치 리더십이라는 말이다.

## 상대국에 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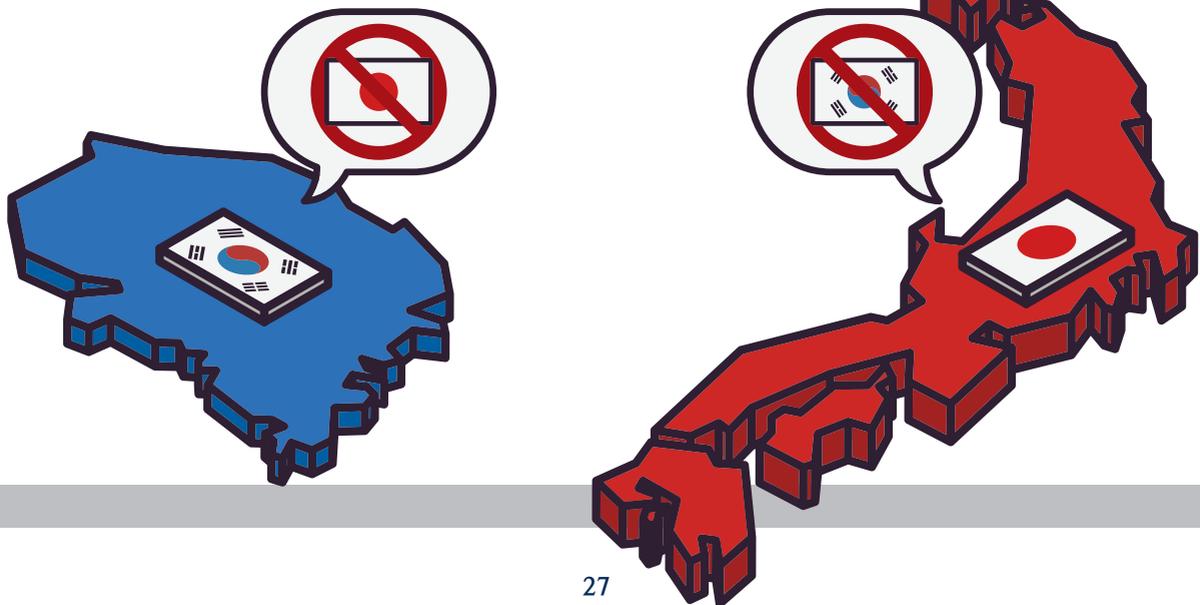
2019년의 한일 관계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한일 정부간 또는 한일 국민간 신뢰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상호 신뢰가 양국 관계 회복의 필수 조건임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상호 신뢰란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온다. 강제징용 노동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시작된 양국 정부의 대응이나, 이를 둘러싼 양국 정부나 정치 지도자의 언설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나 존중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상대 국민을 자극하는 가벼운 언행은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신뢰 구축에 장애가 될 뿐이다.

양국 정치 지도자들은 한일 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복잡적·중층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강경 발언이나 대응책의 응수에 의한 순간적인 국민의 갈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점에 서서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 같은 정치 리더는 말 한마디라도 신중해야 한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다. 자국의 논리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상대국 정부나 상대국 국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새로운 한일 관계의 시작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한일 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양국에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일 양국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돼 일시적이거나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패턴조차 가까운 시일 내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양국 정부에 상대국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미약하고, 청와대나 총리 관저에 상대국 전문가가 부족하며, 소원한 두 정상간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한다면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정치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2019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에 대해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미중 관계, 북미 관계 등을 포함해 앞으로의 동아시아 질서, 국제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속에서 한일 관계를 고민해보자.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반일 감정·혐한 감정을 선동하는 발언에 좌우되지 말자. 국내의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타산이나 선거 공학에 한일 관계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양국에 존재함을 잊지 말자. 한일 관계를 한국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제3자적 관점에서 한 번 바라보자. 그 후에 한국에게 있어 일본과의 관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의 한일 관계가 보일 것이고, 거기에서 나만의 새로운 한일 관계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2019년이길 기대한다.



# H

## Center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Marked beginning of a moder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agency
- History
  - 1983. Founded by GSIT graduates
  - 1994. Becomes affiliated organization of GSIT
  - 1997. Research function added →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stitute*
  - 2001. Research function separated → *Center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 Today, auxiliary organization under *HUF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Testing Center*

# F



U

#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CUFS News](#)

S



## 한국외대,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합격자 6명 배출



인사혁신처에서 지난 9월 10일(화) 발표한 2019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 41명 중에서 우리 대학이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우리 대학 합격자는 채균호(상경·국통 08), 이세봄(아시아·아랍어 07), 김혜민(국제지역대학원·중남미지역학 10), 이진국(아시아·아랍어 12), 김윤주(서양어·노어 13), 임향미(서양어·네덜란드어 05) 씨이다. 올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는 총 1,192명이 응시해 제1차 시험(공직적격성 평가, 선택형), 제2차 시험(전문과목 평가, 논문형(지역외교 및 외교전문분야의 경우 서류전형)), 제3차 시험(면접)을 거쳐 일반외교 분야 33명,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8명 총 41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한편,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외교관 배출을 위해 고시반 운영, 개별 열람실 제공, 다양한 특강 개최, 지도교수 배정, 모의고사 및 모의면접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 및 '동문의 밤'



우리 대학 통번역연구소(소장 이인섭)는 한국통번역사협회(KATI 회장 김순미)와 공동으로 지난 7월 5일(금)~7일(일) 서울캠퍼스에서 '제9차 아태통번역포럼'을 개최했다. 개최식에는 2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으며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이어령 교수, KEVIN QUIRK 세계번역가연맹 회장, 김사인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7월 5일(금) 밤에는 해외학자와 국내외 발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나이티드 문화재단 주관으로 '통번역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 연주회'가 개원 40주년을 축하했고, 6일(토) 밤에는 동문 방송인 안현모의 사회로 '통번역대학원 동문의 밤' 행사가 개최됐다. 국내외 포럼 참석자와 통번역대학원 동문 및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동문의 밤' 행사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 총동문회와 함께하는 ‘2019 HUFS x HUFS 동문 멘토링 워크숍’



우리 대학과 총동문회(회장 민동석)가 함께하는 ‘2019 HUFS x HUFS 동문 멘토링 1박 2일 워크숍-선배가 도와줄게!’가 지난 7월 5일(금)~6일(토)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20여 명의 멘토와 60여 명의 멘티가 참가해 1박 2일 동안 학생들의 진로, 꿈, 미래, 취업과 관련한 많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멘토링이 이뤄졌다. 1일차에는 취업 특강을 시작으로 해외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멘토들과 화상통화, 멘토링 특강이 이어졌으며, 명수당 호반에서 참석한 모든 멘토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오픈 멘토링 투어가 진행됐다. 2일차에는 선배와 후배가 뜻을 모아 MBC ‘우리동네 피터팬 장애인 기부 프로젝트’에 동참해 각각 안 쓰는 물건을 기증하는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후에는 멘토와 멘티간의 토크 콘서트, 멘토링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느꼈던 점과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 총동문회의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 조정부, 제14회 대학조정대회 주관 및 TB남자 너클포어 부문 우승



우리 대학 조 정부는 지난 7월 27(토)~28(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한 제14회 대학조정대회에 참가했다. 대한조정협회와 우리 대학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8개 대학교(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과대학교), 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참가했고, OB남자 에이트(55세 이상), OB여자 너클포어, OB남자 에이트(45세 이상), YB남자 너클포어, OB 주니어 에이트, YB여자 너클포어, YB남자 에이트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리 대학 조 정부는 모든 종목에 참가해 약천후 속에서도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YB남자 너클포어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편, 김봉철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및 김현숙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장이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영어교육과,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지난 6월 1일(토) 우리 대학 영어교육과 창립 50주년 행사가 대학원 2층 BRICs실에서 있었다. 김인철 총장을 비롯해 전임 학과장인 김영조 명예교수, 이선우 명예교수, 이성하 교수, 박정운 교수가 참석했고, 한국어교육과 홍종명 학과장이 자리를 빛냈다. 동문은 오창엽(81) 동문회장을 비롯해 72학번 김의환, 이경실 동문 및 57명의 동문이 참석해 뜻깊은 50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공로상은 학술 연구 부문 이성하(78) 동문, 우수교사 부문 박권우(89) 동문, 발전기금 부문 김해청(91) 동문이 수상했고, 재학생 장학금은 구중석(14), 이서윤(15), 김수현(18), 이하영(19) 학생이 수상했다.



###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한국외대 사업단 현판식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한국외대 사업단(단장 김수완,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지난 6월 13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205호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행사에는 김인철 총장을 비롯해 조기성 글로벌캠퍼스 부총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 김홍재 본부장 등 교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 취업을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다. 브리지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양질의 전공교육을 받을 뿐 아니라 5개월의 전공과정과 5개월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모두 12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 경영대학, 'Applied Data Center' 출범식

우리 대학 경영대학(학장 권석균)은 지난 6월 18일(화) 경영대학 회의실에서 학생 취업 및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한 'Applied Data Center' 출범식을 가졌다. 권석균 학장을 비롯해 유태영 교수(글로벌경영연구소장), 정상욱 교수, 인재형 교수, 윤원주 교수, 경영대학 행정 직원이 행사에 참석했다. 'Applied Data Center'는 DB, 블록체인, 데이터사이언스 등 최신 키워드를 초학제적 연구 수행을 통해 융합적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 경영대학원, '미주 MBA 센터' 출범식

우리 대학 경영대학원(원장 권석균)은 지난 6월 18일(화) 한류를 통한 학문적 세계화의 일환으로 교민들이 많은 LA지역에 '미주 MBA 센터' 출범식을 갖고 경영대학원 최승현 초빙교수를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했다. '미주 MBA 센터'는 한류를 통한 세계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경영대학원을 알리고 학위과정 입학으로 유도하며, 교민 대상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던 CEO과정을 학위과정으로 연계해 확장하고 확고히 하려 한다.



### 직원 정년퇴임 기념 공로패 전달식

지난 6월 27일(목)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에서 김인철 총장은 8월 31일(금)자로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대학 공로패를 전달했다. 이번에 정년퇴임을 맞이한 직원은 글로벌캠퍼스 시설관리팀 안상덕 부장, 총괄지원팀 원영자 선생님, 도서관 학술정보팀 정혜승 선생님이며, 장기간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인철 총장은 이번에 정년퇴직하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며,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더라도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학교가 발전할 수 있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부탁했다.



### 2019학년도 1학기 'HUFS TO THE WORLD - 팩트'체크 문화탐방대' 발대식

우리 대학 2019학년도 1학기 'HUFS TO THE WORLD - 팩트'체크 문화탐방대' 발대식이 지난 6월 27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서울), 이선범 제53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및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선발된 문화탐방대 10개 팀 40명 학생이 참석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재학생들로 구성된 탐방대가 국내외 다양한 인문서적을 읽고 작품 속 관련 장소 및 인물 탐방을 통해 인문학 및 글로벌 지역학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10개 팀은 7월~8월 다양한 지역을 탐방했다.



### 2019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우리 대학은 재외동포재단과 함께 지난 6월 27일(목)~7월 31일(수)까지 5주 동안 '2019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책임: KFL대학원장 김재욱 교수)'를 진행했다. 지난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연수는 러시아 및 CIS 지역에서 온 한국어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교사 능력 강화를 위한 교수법 특강, 다양한 주제별 강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 및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연 이외에도 한국의 역사 및 문화를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는 일정도 있어 체득·체화·체험이 모두 가능한 심도 있는 연수가 진행됐다.



### 조정부, 2019 Inner Mongolia Rowing Club League Masters Regatta 국제대회 참가

우리 대학 조정부가 2019 Inner Mongolia Rowing Club League Masters Regatta 국제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가해 눈길을 모았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8개 대학 500여 명이 출전했으며, 우리 대학은 남자 에이트 1000m, 남자 에이트 6000m 에 참가했다. 조정부 재학생 회장 이준우(스칸디나비아어과 14) 학생은 "내몽골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 김현숙 학생지원팀장이 선수단과 동행해 안전 및 관리에 신경 썼다.



### 입학처, 2020학년도 권역별 올인원 수시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 성황리 종료

우리 대학 입학처는 2020학년도 권역별 올인원 수시 설명회 '너의 합격이 보여'를 전국 2200여 명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우리 대학 '너의 합격이 보여'는 서울 지역에 앞서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1:1 맞춤형 입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 주최 입시 행사가 설명회만 진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데에 반해, 우리 대학은 한 자리에서 2020학년도 지원 전략 가이드 설명회, 모의논술, 모의논술 출제위원의 논술 특강, 학부모 브런치 토크(1:1 상담)를 원스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제24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발대식

우리 대학은 지난 7월 22일(월)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진로취업지원센터 주관으로 '제 24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 발대식'을 개최했다. 임소라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은 김봉철 학생·인재개발처장의 코트라 현장실습 추진 현황 보고, 유석만 부총장의 격려사, 제24기 KOTRA 현장실습생 대표 하윤서 학생(독일어교육과 17, 원혜 무역관)의 선서, 부총장의 현장실습생 대표에 대한 외대 배지 패용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제24기 KOTRA 해외무역관 현장실습생은 모두 65명으로, 47개국 55개 무역관으로 파견돼 5개월 동안 근무할 예정이다.



###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단, 1기 선발 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학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단(단장 김수완, 학생·인재개발처장)은 지난 7월 18일(목)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명수당홀에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1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진행된 행사에는 전종근 교과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전공 과정 담당 교수진,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혜정 청년구직팀장 등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된 내외부 인사들과 1기에 선발된 학생들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사업 소개 및 Q&A 시간 등 취업브리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그외에 회복탄력성 향상 특강, eDISC 진단 결과 분석 특강 등이 진행됐다.



### 한국어 교육 봉사단, 베트남서 교육 봉사 진행

우리 대학 한국어 교육 봉사단은 베트남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기 한국어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선진 교수법을 전수하기 위해 지난 8월 3일(토)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봉사단은 우리대학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학생,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등의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인솔 총괄은 김재욱 교수(한국어 교육 전공)가 담당했다. 우리 대학은 '경기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의 협력 대학으로 선정돼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현지 봉사 장소인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는 우리 대학과 국제교류협약을 맺고 있으며, 경기도 지원 스마트형 교실 구축 학교다.



### '2019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성황리 종료

지난 7월 31일(수)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조기성 한국외대 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초청연수에서는 초등 및 유아교원과 무용교원이 초청돼 전문적 연수를 받았다. 지난 7월 18일(목)부터 13박 14일 동안 진행된 연수에 참가한 54명의 조선족학교 교원들은 분야별 교수이론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실용적 지도법 등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직접 교안을 작성하고 모의수업을 하는 등 조선족학교 교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 2019년도 하계 해외단기어학연수, University of Toronto에서 4주 동안 진행

우리 대학 글로벌캠퍼스는 지난 7월 8일(월)~8월 2일(금) University of Toronto(QS세계대학순위 28위, 2019년 기준)에서 4주 동안 집중단기어학연수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단 20명은 현지 연수단원으로 선발돼 1인당 300만원의 국제화장학금을 지원받아 4주 동안 세계적 명문대학인 University of Toronto에서 수업은 물론 다양한 Social activities, Volunteer Works 등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연수단은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고정준)과 토론토 여행 가이드를 e-book으로 제작하는 공동 프로젝트도 맡아 수행했다.



### 국제지역대학원 재학생, 2019 KF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참여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개발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김한나 학생은 지난 여름을 아프리카 케냐에서 한국을 소개하면서 보냈다. 국제지역대학원 김한나 학생은 한국교류재단(KF)에서 지원하는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공고 소식을 접한 뒤 지인들과 함께 '지구공으로 공공외교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독도와 동해가 단독 표기된 지구공과 자체 제작한 한국 소개 축구공을 활용해 케냐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영토를 올바르게 소개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했고, 지난 7월 6일(토)부터 25일(목)까지 3주 동안 현지 학생들과 케냐를 방문한 관광객을 만났다.



### 진로취업지원센터, 2019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서포터즈 운영

우리 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지난 7~8월 2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청년친화 강소기업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청년들에게 우수한 강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해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 2인 1조로 구성된 서포터즈는 진로취업지원센터와 협의해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취재한 뒤 기사 작성 및 바이얼 활동을 완료했다. 해당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활동확인서가 수여될 예정이다.



### 2019년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16일(금) 우리 대학 2019년 후기 학위수여식이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서울캠퍼스 오바마홀과 글로벌캠퍼스 백년관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모두 1725명(학사 1859명, 석사 434명, 박사 43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김인철 총장, 민동석 총동문회장과 교무위원들은 양 캠퍼스에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했다. 이날 졸업식장에는 가족, 친지, 선후배 등의 내빈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함께했다.



### 2019학년도 2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서 지난 8월 30일(금) 2019학년도 제2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다. 김종철 이사장은 2019학년도 제2학기 신규임용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및 대학 발전에 더욱더 매진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인철 총장, 나민구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전종섭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 함께했다.



### 사회봉사센터, 2019년 1학기 HUFS 사회봉사단 결과보고발표회

우리 대학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8월 21일(수) 서울캠퍼스 미네르바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1학기 HUFS 사회봉사단 결과보고발표회를 개최했다.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 사회봉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된 HUFS 사회봉사단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친 42명이 선발됐고 교내외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결과보고발표회에는 김봉철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과 김현숙 서울캠퍼스 학생지원팀장이 참석했다.



### 2019년도 하계 'HUFS 글로벌봉사단' 베트남에서 4년 연속 봉사활동 진행

우리 대학 글로벌봉사단 2019년도 하계 HUFS 글로벌봉사단은 지난 8월 3일(토)~11일(일) 베트남 호치민 빈롱 An Phuoc B 초등학교에서 7박 9일에 걸쳐 120여 명의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16년 이후 3년 연속 베트남 빈롱시에서 실시된 HUFS 글로벌봉사단의 활동에 고무받은 베트남 빈롱시 교육청의 재방문 요청에 4년 연속 빈롱시에서 학교만 달리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기존의 교육, 문화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외벽 페인트칠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우리 대학의 재정적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



###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 이양구 외교부 본부 대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 학과는 지난 6월 14일(금)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이 기획한 2019년 1학기 제13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고 현재 외교부 본부 대사로 재임 중인 이양구 대사를 연사로 초빙해 '유라시아 도전과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양구 대사는 원우들이 크게 생각하고(Think big), 높이 바라보고(Aim high), 빠르게 움직이는(Act fast)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인재로 거듭나기를 당부하며 특강을 끝맺었다.



독일 아헨공대 교수 Regina Dittmann      독일 아헨공대 교수 Rainer Waser



한국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Octolia      한국외대 물리학과 박사과정 Raveendar

### 한국외대 물리학과, '새로운 비휘발성기억소자' 발견

우리 대학 자연과학대 전자물리학과 정창욱 교수가 독일 아헨공대의 R. Dittmann 교수, R. Waser 교수, 서울대 김미영 교수 연구진과 공동연구를 통해 '고유한 층상구조를 갖는 금속산화물인 SrFeOx에서 발생하는 저항스위칭 메모리 현상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성공했다. 연구결과는 지난 8월 국제저명학술지(SCI)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가는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에 게재됐다. 정창욱 교수는 교신저자이고 한국외대 박사과정 Raveendar학생이 제1저자이다.



### 한국외대, 다문화TV 및 bbb코리아와 업무협약

지난 6월 14일(금) 우리 대학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다문화TV(대표 장영선), bbb코리아(회장 김인철)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철 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300만 다문화 가족을 위한 공익 방송인 다문화TV와 4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20개 언어의 순차 통역 봉사를 하는 bbb코리아와 지역학과 언어에 특징점이 있는 한국외대, 이 3개 기관의 협업은 큰 시너지의 발휘가 기대된다"며 세 기관이 맺는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인철 총장은 현재 bbb코리아의 회장을 맡고 있다.



### 한국외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와 업무협약

지난 6월 14일(금) 대학본부 203호 회의실에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 이하 아태센터)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증진과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 아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시정각 자료와 콘텐츠를 우리 대학과 공유·활용하고, 지역 연구와 문화 교육 교재도 개발할 예정이다.



###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경희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6월 27일(수)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교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이지연 센터장, 이미화 상담교수, 경희대학교병원 백중우 정신건강의학과장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위기 학생의 진료 협조, 의료적 지원 및 정신건강 교육·세미나 교류 활동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희의료원 서관 1층에 위치한 진료협력센터(700번)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을 위한 진료예약 및 접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슈람), 동대문구청과 업무협약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역인문학센터(간디아슈람)는 지난 8월 20일(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에서 인도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인도연구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도 및 남아시아의 문화와 인문학을 동대문구민에게 소개함으로써 평생 학습도시 계획에 기여하게 됐다. 그 첫 시작으로 9월 19일부터 '인도의 지혜: 자아와 행복'과 '인도 문학과 인간이야기' 수업을 진행했다.

### 중앙아시아연구소

#### 투르크-알타이 경제권 진출기업 설명회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은 지난 6월 10일(월) IBK기업은행 파이낸스 타워에서 IBK 기업은행과 공동 주관으로 '투르크- 알타이 경제권 진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사업단 단장인 오종진 교수와 IBK 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장의 인사말 이후 '터키와 몽골 시장진출 희망 기업을 위한 성공전략 및 현지정보 안내'를 주제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설명회는 우리 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조양현 교수의 '터키 경제 투자 현황과 진출방안', 몽골 국립대 경제학과 몽흐나상 교수의 '몽골 경제현황과 투자전망', 터키투자청 한국 지부장 타하 사란의 '터키투자청 소개 및 홍보' 발표로 이뤄졌다.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을 끝으로 투르크-알타이 경제권 진출기업 설명회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 2019년 세미오시스 여름학교

우리 대학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센터장 전기순, 스페인어과 교수)는 지난 8월 19일(월)~21일(수)까지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를 개최했다. 2019년 세미오시스 여름학교는 '세미오시스 인문학: 퍼스와 21세기 융합학'이라는 큰 주제 아래 서로 다른 학문들의 다양한 통섭 과정과 융합 양상을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 발표자와 청중이 함께 숙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학문 잔치의 마당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날-

미학적 인간, 둘째 날-기호적 인간, 셋째 날-포스트 휴먼과 인간학이라는 분과별 주제를 정해 매일 5개씩 모두 15개의 강좌가 펼쳐졌고, 일반 강의와 세미나, 토크쇼 등 다양한 진행 방식을 도입해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 철학문화연구소

#### 해외학자 초청 강연

우리 대학 철학문화연구소(소장 권영우, 철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7일(월) 대학원 건물 4층 브릭스홀에서 독일 예나대학 철학과 Klaus Vieweg 교수를 모시고 해외학자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Klaus Vieweg 교수는 'Hegel's Adventures in Wonderland-Der Anfang der Philosophie(이상한 나라에서의 헤겔의 모험 - 철학의 시작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고, 뒤이어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남미연구소

####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9 여름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가 주관하고 한국스페인어문학회 주최한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19 여름학술대회'가 지난 6월 15일(토)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전에는 '라틴아메리카 생태문명의 인문학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회사를 진행했고, 오후에는 5개 분과에 걸쳐 학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우리 대학 신정환 교수가 선출됐다.



#### 추종연 외교보좌관 출판 기념 특강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은 지난 5월 16일(목) 현 국무총리실 추종연 외교보좌관의 「신의 선물 사람의 땅, 중남미」 도서 출판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 추종연 외교보좌관은 오랜 기간 중남미에서 외교관 생활 및 대사를 역임했고, 중남미 관계와 정치계는



## HUFS Academies

물론 경제계, 학계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연구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장인 정경원 교수의 초청으로 그의 중남미에 관한 지식을 학생과 일반 시민에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고, 수많은 학생들이 특강 이후 추종연 외교보좌관의 중남미 미래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 제1회 콜로키움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소장 정경원)는 HK+(인문한국 플러스) 생태문명융합연구사업의 국내외 학술 교류 프로그램의 하나인 제1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조영현 교수를 초청해 라틴아메리카 '수막 카우사이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영현 교수는 특히 안데스 원주민 공동체들의 용어인 '수막 카우사이'의 개념, 실천 측면을 통시적 또는 공시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정경원 소장은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 사회에 내재한 공동체성 가치, 특히 이들이 인식하고 실천해 온 생태·자연에 대한 접근이나 인식 태도에 대한 좀더 많은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토론에서 부연해 설명했다.



### 장모네 EU센터

#### 한-EU 관계론 출간 기념 세미나와 리셉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는 지난 6월 27일(목) 오후 6시 한남동 주한EU대사관저에서 단행본 '한-EU 관계

론'의 출간 기념 세미나와 리셉션을 개최했다.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에서 발간된 이 책은 지난 15년간 유럽연합이 발주한 EU센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축된 역량과 지식을 담아 교내외 11명의 유럽 전문가에 의해 저술된 역작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저자 11명과 미하엘 라이터러 EU대사, G20 회의로 오사카 출장 중인 외교부 정기홍 유럽국장을 대신한 장운정 서유럽과장 및 박정연 일등서기관, 이창훈 전 한라대 총장, 이종원 전 한국무역학회 회장, 테레사 노보트나 자유베를린대 교수 등이 참석해 발간의 의의를 되돌아보고 양자 관계의 현황과 전망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시아태평양 EU학회 2019 상해 대회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는 지난 7월 5일(금)~9일(화) 중국 상해에 소재한 복단대 주최로 열린 아시아태평양 EU학회 연례대회에 세션을 구성해 참석했다. 약 150명의 아시아와 유럽의 학자들 및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모인 이번 대회에서 '한-EU 관계'를 주제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사의 사회 아래 김시흥 소장, 김봉철 교수, 강유덕 교수, 이무성 교수가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대학원생 대회에서는 국제지역대학원 EU학과 박혜련, 심지민, 김주영, 우유미, 조혜정 원생이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유럽과 아시아 학자들 사이의 폭넓은 교류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석사 과정생들이 대거 참가해 국제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 인도연구소

#### 명사 초청 특강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HK+사업단은 지난 7월 1일(월) 뉴욕주립대 월터 하칼라 교수를 초청해 'Signs in the Spoken Tongue: Early Public Writing in Urdu'를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월터 하칼라 교수는 근대 남아시아의 형성과 우르두, 힌디어의 관계를 고찰한 저서 'Negotiating Languages'를 출판했으며, 이외에 근대 인도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연구와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왔다. 이번 특강에서는 초기 우르두어로 쓰인 대중적 글에 나타난 구어의 상징에 대해 밝혔다. 또한 7월 5일(금)은 국제관 203호에서 김은경 박사를 모시고 '타고르, 전통과 현대를 이어주는 미학의 장을 마련하다'라는 주제로 명사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인도 비슈워 바르피 대학에서 미학을 전공한 김은경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타고르의 레드 올랜더스 작품을 통해 인도 전통과 근대 문명이 융합된 지점에 타고르 미학의 절정이 표현됐다고 소개했다.



### 2019년 인도 소사이어티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지난 7월 29일(월) 국제관 2층 회의실에서 '2019년 인도 소사이어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연구교수와 인도의 싱크탱크로 저명한 학자 및 전문가들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 온대원 센터장의 환영사와 인도 국방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수잔 치노이 외교관의 특별 연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단의 연구와 사업을 설명했으며 인도 연구의 전문가들간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제1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 학과 교수)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은 지난 8월 22일(목요일) 서울캠퍼스 본관 203호실에



서 제1회 인도·남아시아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인도의 대전환' '사상의 일원화' '힌디어의 전인도화' '역사의 힌두화' '문화 다양성의 획일화' '강한 인도·성장의 인도'라는 여섯 가지를 논문 주제로 제시했고, 전국 각지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응모했다. 응모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교수, 연구원으로 구성된 3인의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진행했으며, 다시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최종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모두 10명에게 350만원의 상금과 상장, 소정의 선물을 수여했다.

### 국제지역연구센터

#### 2019 서울워크샵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센터장 온대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국제지역대학원 NRF국제공동연구팀(연구책임자 박재적 교수)은 지난 6월 13일(목)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중국, 주요 강대국들, 그리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2019년 서울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진이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3년째 수행하고 있는 '미국주도 동맹의 연계: 아태지역 및 역외로의 확장' 및 '미-중간 전략적 관계와 인도-태평양 구상의 미래' 등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미국, 호주, 인도, 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및 인도양 지역 국가들에서 다수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중견 연



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주요 쟁점들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의 시간을 함께했다.

### 외교통상연구센터

#### 제11차 외교 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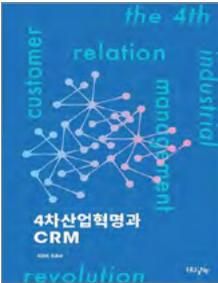
우리 대학 LD학부와 IT학부 산하 외교통상연구센터는 지난 6월 5일(수)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제11회 외교포럼을 개최했으며, 제11회 외교포럼 개최를 기념해 김영완 외교통상연구센터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외교포럼에서는 Michael Schwarzingger 주한오스트리아 대사가 '오스트리아-유럽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뒤를 이어 임한택 LD초빙교수의 사회로 Michael Schwarzingger 주한오스트리아 대사, 강유덕 IT학부 학부장, Mason Richey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 참여해 '오스트리아의 유럽 내에서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에 따른 역사 문화적 특징,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조연설과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번 포럼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HUFS Professors



**박진 석좌교수, 양곤 대학서 특강 개최**  
박진 석좌교수는 지난 6월 21일(금) 양곤대학에서 'Korea's New Southern Policy & Korea-Myanmar Partnership(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한·미얀마간의 협력관계)'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양곤대학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특강에는 교직원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했고,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준서 경영학부 교수 출간 도서, 2019년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 분야 선정**  
조준서 경영학부 교수가 출간한 「4차 산업혁명과 CRM(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도서가 지난 7월 8일(월)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발표한 '2019년 우수학술도서'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2019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돼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찬완 인도·아세안학과 교수,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 선출**  
김찬완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교수(인도연구소 소장)가 지난 8월 28일(수) 열린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총회에서 인문한국(HK)연구소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9월 1일(일)부터 1년간이다.



**유재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명예교수, 그리스 국립 테살로니키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  
유재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명예교수가 지금까지의 그리스어와 그리스학에 대한 공로와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아 지난 6월 27일(목) 그리스 국립 테살로니키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테살로니키대학 알렉산드로스홀에서 열린 명예박사 수여식 수락 연설에서 유재원 명예교수는 학문으로서의 모국어가 가진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리스 국립 아테네대학과 테살로니키

대학 두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며, 유재원 명예교수에게 수여된 학위가 아시아 최초의 언어학 명예박사 학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재우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 마카오에서 세계한학(漢學)연구회 제3차학술포럼**  
올해 초부터 세계한학(漢學)연구회의 마카오 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재우 중국언어문화학부 교수는 지난 8월 19일(월)~20일(화) 마카오대학에서 '중국신문화백년사와 마카오 한학'을 주제로 한 '세계한학연구회 제3차 학술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7개의 세션으로 나눠 이틀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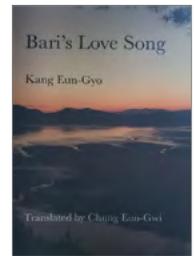


**이재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제21회 강남미술대전 특선 수상**  
이재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하안공간 지도교수)는 제21회 강남미술대전에서 '오월의 끝 I / II/III'로 특선을 수상했고, 6월 29일(토)에 발표된 '제55회 경기미술대전'에서는 '울산바위로 서양화' 부분에서 입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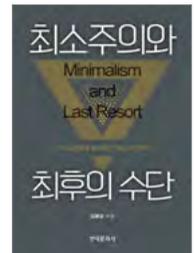


### 교수출간

**정은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미국서 네 번째 영역시집 출간**  
정은귀 영어대학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가 강은교 시인의 '바리연가집'을 영역한 「Bari's Love Song」을 미국의 시 전문 출판사 Parlor Press에서 출간했다. 이 시집은 바리데기 신화를 우리 현대사에 접목한 이야기 시의 특징을 영어로 잘 살려냈다고 호평받았다.



**김광섭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신간 출간**  
김광섭 영어통번역학부 교수가 출간한 「최소주의와 최후의 수단(한국문화사)」 도서가 지난 7월 8일(월) 교육부와 대한민국학술원이 발표한 '2019년 우수학술도서' 인문학 분야에 선정됐다. 2019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는 전국 대학 도서관에 배포돼 기초학문 분야 연구 및 저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Brief News

## New Professors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01 **김영화**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02 **김지은**  
KFL대학원 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학과

03 **김민영**  
KFL 학부

04 **이춘호**  
인도연구소

05 **김미수**  
인도연구소

06 **Garrett Dehond**  
영어대학 ELLT학과

07 **Nicholass Yohan Duvernay**  
영어대학 ELLT학과

08 **Steffen Hannig**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09 **Yingyot Kanchina**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10 **Om Nath Bimali**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인도어과

11 **Tae Young Kim**  
국제학부

12 **Michael Paul Simon**  
외국어교육센터(서울)

13 **Guillamet Benoit**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14 **Sailal Arimi**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15 **Larprungrueng Soontaree**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16 **Pathranuprawat Sayam**  
통번역대학 태국어통번역학과

17 **Wioletta Hajduk-Gawron**  
동유럽대학 폴란드어과

18 **Borza Mioara**  
동유럽대학 루마니아어과

19 **Boris Skvorc**  
동유럽대학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 외국어연수평가원

#### 2019년 하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19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2019.08.05~12.20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2019.07.16~07.31
야간과정	10주 야간회화과정	2월, 4월, 8월, 10월	2019.10.14~12.19
주말과정	14주 주말과정	3월, 8월	2019.08.31~12.14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 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과정은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10주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 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 특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c.hufl.ac.kr](http://fltc.hufl.ac.kr)

####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들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25 [홈페이지 http://fltc.hufl.ac.kr](http://fltc.hufl.ac.kr)

###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정부의 이름인데 Instituto Cervantes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l.ac.kr](http://dele.hufl.ac.kr)

### 세르반테스 교실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입문, 초급, 중급, 고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축구스페인어, 여행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 지난해 9월부터는 평일 오전과 토요일에도 일반어학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 서울평생교육원

####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38년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l.ac.kr](http://edulife.hufl.ac.kr)

#### 통번역 단기특강

서울평생교육원은 학생 및 일반인의 통번역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통번역기초과정에 이은 통번역 단기특강을 준비했다. 통번역 단기특강은 5주 동안 통번역의 기초를 다져 좀더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에 필요한 기틀을 닦을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지난 7월 진행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l.ac.kr](http://edulife.hufl.ac.kr)

### FLEX센터

#### 2019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 쓰기, 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1. 29 ~ 02. 08	03. 03	03. 22	04. 05
2회	04. 26 ~ 05. 02	05. 26	06. 14	06. 28
3회	08. 01 ~ 08. 07	09. 01	09. 20	10. 04
4회	10. 10 ~ 10. 16	11. 10	11. 29	12. 13

문의 02-2173-2532, 2529 [홈페이지 http://flex.hufl.ac.kr](http://flex.hufl.ac.kr)

####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l.ac.kr](http://flex.hufl.ac.kr)

### 통번역센터

####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과 학부와의 연계를 통해 15개가 넘는 언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

고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올 6월까지 300여 건의 11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1000여 건으로 17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포르투갈어, 카자흐스탄어, 우즈베키스탄어, 터키어, 키르기스어, 카탈루냐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 한국문화교육원

#### 가을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가을학기는 9월 2일(월)부터 11월 14일(목)까지 진행되며 등록 인원은 700여 명이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60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의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0

####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지난 7월 24일(수)부터 8월 21일(수)까지 여름학기 한국어 단기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단기과정에는 41명이 참여했고,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적 외에 미국, 폴란드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국어 단기과정은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 음식 만들기, 한복 체험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이 매주 이뤄진다.

문의 02-2173-2260

#### 한국어 위탁·특별교육과정 실시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싱가포르 Ngee Ann Polytechnic, 태국 송클라대학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사업 등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우디 의료진,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UAE 원자력 공사 외국인 대상으로 출강을 진행했다. 현재

일본 호세이대학 특별과정, 일본 테이쿄대학 특별과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사우디아라비아 의사펠로우쉽 사전연수 프로그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위탁 사우디아라비아 치과 의사 한국어 특별과정을 진행하며, 올 하반기 일본 니이타대학 특별과정,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과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2173-2610

### TESOL 전문교육원

#### 2019학년도 전기(33기) 수료식 및 후기(34기) 입학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에서는 2019학년도 전기(33기) 수료식 및 후기(34기) 입학식을 지난 8월 17일(토)에 개최했다. 이번 전기 수료식을 통해 배출된 TESOL 과정 수료 및 이수자들은 추후 다양한 영어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며 영어 교육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후기 입학식에는 지난 5월과 7월에 나누어 진행된 입시 전형으로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이 참여했으며, 이준규 TESOL 전문교육원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신학기 과정생들의 입학 축하했다. 또한 교수진과의 만남 및 학사 안내를 통해 신학기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 2020학년도 전기(35기) 교육생 모집 일정

TESOL 전문교육원은 2020년 3월 2일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0학년도 전기 과정생 모집 전형(일반전형, 1차 모집)을 2019년 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자료 읽기와 영어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내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2차 모집인 특별 전형은 2020년 1월 진행할 예정이다.

#### 2019학년도 후기 수강자 대상 인턴십 설명회

TESOL 전문교육원은 지난 9월 말 중 주중과 주말, 두 차례에 걸쳐 해외 대학 인턴십 설명회를 개최해 2개 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캐나다 셀커크대학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은 국내 대학에서 진행되는 TESOL 자격증 과정 중 유일하게 해외 대학에서 인턴십을 진행한다. 참가 대상자는 현 수강생 및 수료생 중 인턴십에 관심이 있는 인원이다.

#### 동대문 영어체험교실 진행

한국외대와 동대문구청이 함께하는 2019학년도 여름 방학 동대문 영어체험교실이 지난 7월 29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12일 동안 진행됐다. 영어체험교실은 원어민과 함께 기본적 영단어부터 팝송, 스포츠, 미술, 토론 등 다양한 분야를 영어로 수업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게 구성해 동대문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여름에도 사전 레벨테스트와 입소식 반편성 고사를 통한 수준별 반 구성 등 차별화된 수업 방식을 적용했고, 다양한 활동 중심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97명의 학생과 6명의 원어민 교사, 9명의 한국어인 보조교사 및 스태프가 함께한 이번 캠프는 동대문구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폭넓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 외국어생활관 지역전문가과정 수료식

국제사회교육원은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과정으로 구성된 '온보드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국내 과정은 교육생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해외 과정은 현지 언어 및 이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력 Pool 양성을 목표로 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8주 국내 주말 과정과 3주 해외 과정으로 구성해 모두 11주 동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 중국 어언대학교와 멕시코 La Salle University에서 해외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외대 국제사회교육원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글로벌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중국어와 스페인어 두 학급을 개설해 교육을 진행했다.

#### 2020학년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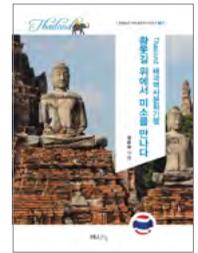
국제사회교육원(원장 백재승, 국제금융학과 교수)은 지난 2월 25일(월)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파견 전 어학집중과정 입소식을 개최했다. 현지에서의 어학 활용 능력 신장을 위해 입소한 이번 교육생들은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어학 학습에 역점을 두고 교육받을 예정이다. 교육 기간 종료 뒤에는 교육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정의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현지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 새로 나온 책

### 러시아, 도시로 읽다

'7월 말의 페테르부르크는 백야의 흔적을 어스름히 드러내고 있다. 완전히 해가 지지 않은 회색의 어두움 가운데 푸르스름한 조명으로 비추어진 고풍스러운 건물이 인상적이다. 니콜라이 고골의 단편이 보여주는 그로테스크한 환상의 세계,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기만적인 백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책에 등장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관한 이야기다. 그외에 칼리닌그라드, 포스코프, 벨리키노보고로드... 도시를 통해 러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준다.

강덕수 외 / 640면 / 신국판 / 30,000원



### 코카서스 3국 들어다보기

신이 점지한 땅이라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가 수천 년 동안 형벌을 받았던 조지아의 프로메테우스 전설, 노아의 후손임을 자처하며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아르메니아인들, 불을 숭배한 아제르바이잔들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이 책은 이들 3개국 민족의 생생한 삶과 문화를 따라가려는 노력이고, 이들 국가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여행 안내서다.

윤창용 / 360면 / 신국판 / 30,000원

### 중국의 속어와 인문세계

속어는 언어 기호 체계 중에서 비교적 특수한 기호이며 정형화된 언어 표현 형식이다. 사회의 습관적 사용으로 말미암아 형식상, 의미상, 기능상, 환경상 기타 언어 기호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고정적이지만, 사회 언어학적 각도에서 보면 가장 풍부한 문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속어가 굴절 투사하는 인문 세계는 가장 절묘하며, 속어가 반영하는 세태와 민심은 가장 직접적이다.

崔希亮, 맹주역 / 424면 / 크라운판 / 30,000원

### 태국역사문화기행

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여행 에세이다. 저자는 태국의 사원을 돌아보면서 일관된 하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붓다의 미소였다. 저자는 태국인들의 미소가 어느 시대 어느 사원을 가더라도 하나같이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는 불상들의 미소와 묘하게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황톳길을 걸으며 발견한 것은 붓다의 미소이면서 바로 태국인들의 미소였다.

정환승 / 552면 / 신국판 / 25,000원

## 공감과 공간

지역은 이제 행정 구역이나 국경 같은 지리적 경계를 넘어 좀더 광역적으로 전화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와 교통수단의 발달은 지역의 사회적·인지적 범위를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역의 성공은 곧 국가의 성공의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책은 지역 문화 자원 개발과 관련해 이론적 토대를 탄탄히 하고, 이를 구현하는 실질적 사례를 통해 지역 문화를 살핀다.

김진영, 이종오 / 288면 / 신국판 / 29,000원

## 다시 읽는 인도사 108장면

인도의 과거와 현재를 알기 쉽게 풀이한 역사 에세이다. 교양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연구 논문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되도록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서술했다. 물론 전문적 내용을 너무 깊이 다루면 읽기 어려운 책이 되듯, 쉽게 읽기에 치중하면 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내용은 탄탄한 책이 되기를 희망하며 펴낸 책이다.

박금표 / 640면 / 신국판 / 32,000원

## 퍼스기호학의 이해

제임스 아쿱 리슈카 교수는 퍼스의 목소리를 통해 퍼스 기호학을 소개하며,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퍼스의 기호 이론을 설명한다. 특히 폭넓은 퍼스 자료와 함께 퍼스의 기호 이론을 명확하고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퍼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서가 될 것이며, 초보 연구자들이 퍼스의 복잡한 사유를 이해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임스 아쿱 리슈카, 이윤희 / 304면 / 신국판 / 29,000원



## 영상으로 즐기는 태국어

「영상으로 즐기는 태국어」라는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하며 재미있는 태국 영상물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태국어를 이해하고 쉽게 구사할 수 있게 만든 책이다. 1단계에서는 듣기, 2단계에서는 의미 이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러운 번역을 할 수 있게 했고, 3단계에서는 자유 회화가 가능하게 했다.

이정윤 / 416면 / 크라운판 / 30,000원

## 북한 아동영화와 미디어의 횡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북한의 아동 영화와 작품을 전문적으로 평가한 서적은 없다. 이 책은 장면과 시리즈의 작품 분석, 북한 아동 영화의 창작 방법, 창작 지침 외에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 활동했거나 활동하는 제작진 소개 및 현재 북한 아동 영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행정 일꾼들의 인적 정보를 확인해 조선4.26 아동영화촬영소 조직 체계와 운영 방식 등의 실체에 접근했다.

김은정 / 248면 / 신국판 / 18,000원





###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및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8월 24일(토) 사이버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478명, 석사 31명 등 모두 509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종렬 총장과 각 학부·학과 교수들은 단상에 올라 졸업생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학위수여식 이후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입학생들의 원활한 학업 수행과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학사와 콘텐츠, 대학 생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으며, 학부·학과별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맞손잡고 특성화고 학생 대상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 개설

사이버한국외대는 서울시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성화고 온라인 외국어교육과정'을 개설해 지난 7월부터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한국외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다국적 언어(외국어) 능력 향상과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교육부 지원 'K-MOOC 운영사업' 신규 묶음강좌 선정

사이버한국외대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사업' 신규 묶음강좌에 선정됐다. 2019년 K-MOOC 묶음강좌 공모에 선정된 대학 중 사이버대학교로는 사이버한국외대가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강좌는 마케팅·광고학과와 영어학부가 공동으로 제안한 '컨벤션기획사 자격증대비과정(2급): 게임화 융합설계'로, 10월 하순부터 K-MOOC 홈페이지에 선보일 예정이다.

### 태국 우따라딕라차팻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 체결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9월 2일(월) 태국 우따라딕라차팻대학교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우따라딕라차팻대학교 르양팅 원라오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관계자들이 사이버한국외대를 방문했다. 양 대학은 공동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 교육·연구에 관한 교류, 양 대학 방문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상호 지원, 공동 연구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 2019 하계 해외 교육 프로그램 실시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해외한국어교육실습' 등 하계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는 각각 미국 오하이오대학교, 중국 북경영어언어대학,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진행했고,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한국어학부는 프랑스 에밀리 뒤 사틀레 고등학교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실습을 마쳤다.



### 중국어학부, 'CUFS 중국어 여름학교' 시행

중국어학부는 지난 6월 19일(수)부터 7월 13일(토)까지 사이버관에서 대만의 가오슝사범대학 화어문교학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CUFS 중국어 여름학교'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는 직장 업무 등 시간 여건상 방학 중 진행되는 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국내에서도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대만 가오슝사범대학 언어교육센터 등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중국어 교사들을 초빙해 기획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 지방 행정·의회 학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특강

지방 행정·의회 학과는 지난 6월 1일(토)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성공적 행정사무감사 전략 및 노하우'를 주제로 오프라인 특강을 실시했다. 전국 유일의 지방행정 및 지방의회 특성화 학사 학위과정인 지방 행정·의회 학과는 지난해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학생들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0개 기초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만큼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H

U

# Alumni & Donation

HUFS Alumni  
HUFS Donation

F

S



###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취임식 및

#### 제18대 총동문회 출범식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는 지난 8월 26일(월) 총동문회장(정종기 경영학박사·얼라이언스코리아 대표) 취임식 및 총동문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종기 회장은 제17대 총동문회장에 이어 제18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임됐다. 이 날 정종기 총동문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종기 회장은 “총동문회는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 ‘상생과 협업’, ‘재미와 보람’을 기본 정책으로 정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총동문회는 경영대학원/무역대학원/세계경영대학원/경영정보대학원/ 석사과정, MBA과정, 경영정보과정, 최고경영자과정, G-CEO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영어대학동문회,

#### 미국 BANK OF HOPE Kevin S. KIM 행장 초청 특강

영어대학동문회(회장 윤용로/영어74/코람코자산신탁 회장)는 지난 9월 5일(목)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케빈 김(영어76) 미국 뱅크 오브 호프 행장을 초청해 후배 재학생과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케빈 김 행장은 한국외대를 졸업한 뒤 UCLA에서 경영학 석사과정과 MBA를 마치고 미국 회계법인에 취업했다. 이후 2014년 11월 BBCN 은행장에 취임했고, 올해 LA 비즈니스저널이 선정하는 'LA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500인'에 4년 연속 선정됐다.



### 사학과 이영학 명예교수 퇴임식 행사 및 제2회 동문 답사

우리 대학 사학과 이영학 명예교수 퇴임식 및 고별 강의를 지난 6월 17일(월) 글로벌캠퍼스 인문경상대에서 열렸다. 대학원 정보·기록학과에서도 지난 7월 20일(토) 서울캠퍼스 BRICs 문화관에서 퇴임 기념식을 진행했으며, 같은 날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은퇴 기념 행사를 열었다. 더불어 지난 10월 20일(토)에는 졸업한 제자와 가족이 함께 '서해안의 섬과 역사'라는 테마로 전통의 학술 답사를 진행하였다.



### 장동한 동문, 아시아-태평양 보험학회 신임 회장 선임

우리 대학 동문인 장동한(영어 78)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지난 7월 30일(화)자로 아시아-태평양 보험학회(APRIA)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아태보험학회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 일대 리스크 관리/보험 학자들의 학술 모임으로 올해 23회 연차 학술대회가 서울 건국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리스크 사회의 지속 가능 성장: 보험산업의 도전과 기회'란 주제로 아래 고령화 리스크, 재난 리스크 관리, 보험 산업 자본 규제, 인수에테크 등 학계와 업계의 현안을 중심으로 전체 세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김수일 동문, 부산 벡스코서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우리 대학 동문인 김수일(말레이·인도네시아어 72)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 사무총장(전 주동티모르대사)은 지난 9월 25일(수)~2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시도지사 100여 명과 수행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아-태 지역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 HUFS Alumni

### 등문출간

**김남규(영어 75)**  
99단 영어회화 33일에 정복하기  
(김남규외국어출판사)



**김형진(G-CEO 97)**  
김형진의 공부경영  
(김영사)



**김양순(영어 89)**  
무량수경연의술문찬연구  
(초롱)



**민동석(노어 73)**  
외교관 국제기구 공무원 실전 로드맵  
(한국학술정보)



**김정신(일어일문(석)16)**  
고통의 시 쓰기, 사랑의 시 읽기  
(아모르문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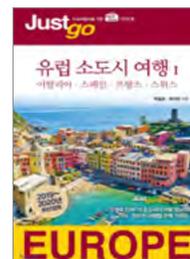
**전희진(태국어 06)**  
태국어 메뉴판 마스터  
(브레인스토어)



**이종근(스페인어 93)**  
알리바바닷컴에서 무역하기  
(굿인포메이션)



**최철호(영어 85)**  
**최세찬(국제경영 08)**  
유럽 소도시 여행  
(시공사)



## HUFS Alumni

### 금융

조봉진	경제83	IBK기업은행 서초3동지점장
채한식	정치외교83	IBK기업은행 CIB영업본부장
오재정	법학84	KDB산업은행 연금신탁본부 신탁실 증권수탁업무담당장
이영훈	노어84	KDB산업은행 중소기업금융본부 화성팀장
김형운	경제85	KDB산업은행 강남지점장
임정주	영어86	KDB산업은행 김해지점장
전선준	경제85	수출입은행 남북협력본부 남북경협실장
신현수	프랑스87	신한은행 대기업고객부장
김광섭	행정87	우리은행 분당금융센터 센터장
전보현	마인89	우리은행 글로벌영업추진부 부장대우
조재찬	마인90	우리은행 유류법인 법인장
황규호	경영89	우리은행 감사실 부장

### 공공기관

황인수	신문방송80	EBS미디어 대표이사
유상욱	영어91	JTBC 사회정책부장
전진배	프랑스90	JTBC 취재담당 겸 정치에디터
정창준	스페인88	KBS 시사제작부 부장
김원	중국94	MBC 콘텐츠프로모션 부장
도재기	이법84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김준원	행정(석)87	광남일보 사장
남혁상	신문방송90	국민일보 사회부장
홍기삼	항기89	뉴스1 사회정책부 서울시청팀 부장
양재찬	이법77	더스쿠프 편집인
김정원	네덜란드97	동아미디어그룹 미래전략연구소 경영교육팀 차장
박상숙	태국91	서울신문 정책뉴스부장
안동환	신문방송93	서울신문 체육부장
임종주	독일88	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장 겸 특파원
진명선	정치외교99	한겨레신문디지털미디어국 미디어랩 센터팀장

### 언론

하관호	국제경영90	경남제약 대표이사
김의성	베트남93	브리타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대표이사
주용안	국제통상(무역)90	에이치테크놀로지 한국지점 대표이사
허재정	이법83	유니슨이테크(주) 대표이사
김정범	경제82	현대상선 구조본부 본부장
기익성	경영90	현대해상 경리부장

### 기업

권기대	법학94	감사원 기획조정실 결산담당관
박신환	이법81	경기도 남양주시 부시장
김순호	공공정책(석)03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김정훈	컴퓨터공학83	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보령서장
변인수	중국89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문경서장
이원상	러시아89	관세청 양산세관장
송미선	정치외교91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오명준	법학87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종현	폴란드87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오창석	스페인84	국회사무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행동욱	행정88	군산시 부시장
김석	독일87	방위사업청공중지원통제감시사업팀장
강수산나	영어87	법무부 법무연수원 진천분원 교수
강의곤	영어87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장
김용자	중국94	법무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장
김종오	영어88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
박철	법학93	법무부 제주지검 국가정보원 파견
서인선	법학92	법무부 대전지검 공안부장
서창원	법학90	법무부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성훈	법학91	법무부 안산지청 형사1부장
이귀용	프랑스87	서울 동대문구 회경1동 주민센터 동장
양병찬	영어교육82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이원목	영어84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 정부기관

장광희	프랑스90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 팀장
정기연	프랑스91	외교부 동남아1 과장
홍순복	노어92	외교부 중남미과 남미과장
김현택	영어87	인천시 해양항만과 해양수산협력관
김기성	외교인보(석)95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안경찬	아프리카8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영경영총괄본부 경주운영본부 강남지점장
이정훈	법학88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지점장
이종배	경제83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고봉숙	중국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비자-전자상거래실 유통전자상거래PM
김신아	중국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스키장무역관 개설요원
박찬길	스페인8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고터무역관장
박한수	이법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실장
양기모	국제통상(무역)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력산업실장
엄익현	국제통상(무역)8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획조정실 기획협력팀 국회협력PM
윤여필	경제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통상협력실 무역분석팀장
윤현철	독일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산업실 의료서비스팀장
이관규	중국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혁신실 정보보안팀장
임태형	경제9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압다바드무역관장
장수영	프랑스8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기획실 외투기업채용지원팀장
전준우	스페인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지털혁신실장
정봉기	이탈리아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밀라노무역관장
홍정아	영어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실 강소중견기업팀장
황기상	브라질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견기업실 유망기업팀장
이도영	정치외교84	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이병복	프랑스83	신용보증기금 인천제기지원담당
이인수	스페인85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
이재휘	일본85	신용보증기금 반월지점장
여태수	영어84	인천국제공항공사 미래사업본부 해외사업처 차장
김상구	중국8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영동지부 부서장
박윤식	태국8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부 부서장
배경화	행정(석)0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북부지부장
이광진	행정9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부서장
김관미	이법88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지사장
김남천	프랑스86	한국관광공사 미래혁신팀 팀장
김형준	포르투갈91	한국관광공사 안내교통팀 팀장
심홍용	영어87	한국관광공사 숙박개선팀 팀장
안덕수	프랑스82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 실장
안효원	영어94	한국관광공사 관광창업지원 팀장
이병찬	프랑스82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개발원 원장
이태혁	프랑스84	한국관광공사 사회적기치팀 팀장
정병희	스페인80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 대외협력관
정진수	일본84	한국관광공사 일본 도쿄지사 지사장
장진욱	일본84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원본부 운영지원
박수범	포르투갈95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책임심사역
안혜성	프랑스83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사업본부장
김재용	영어89	한국예탁결제원 혁신창업지원단 및 일자리창출추진단 단장
최완욱	행정8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부 연구지원실장
장광진	정보관리(석)01	한국콘텐츠진흥원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팀 팀장
하태영	공공정책(석)03	해양경찰청청정 행정법무담당관
송복영	산업경영공학96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 해양쓰레기 대응센터장

### 학계

김우성	스페인78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혁신담당
-----	-------	-----------------

### 기타

김필국	이법86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진규	글로벌문화콘텐츠(석)10	대전정보보호산업진흥원 원장
서형석	스칸디나비아8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태운	경영88	여성금융협회 금융본부 본부장
양인호	독일59	주한 명예영사단 단장
최용호	법학88	한국고직업교육진흥회 준법지원실 법무지원팀



###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회장, 발전기금 1억원 기탁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회장은 지난 7월 10일(수) 우리 대학 발전과 스마트도서관의 성공적 건립을 지원하며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기탁했다. 우리 대학 제26·27대 총동문회장을 역임하며 언제나 모교 사랑에 앞장서왔던 강덕영 회장이 모교 발전을 위해 다시금 나눔의 뜻을 전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귀한 재원을 희사한 강덕영 회장의 뜻을 받들어 도서관 내부에 강덕영 회장의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덕영 회장은 세계로 도약하고 있는 제약회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와 다양한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유나이티드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다.



### 구자철 에스코홀딩스 회장, 장학금 기부 1억원 돌파

지난 9월 9일(월) 구자철(영어 73) 에스코홀딩스 회장이 기부한 영어대학 '구자철 장학금'이 1억원을 돌파했다. 구자철 회장은 2014년부터 매 학기 1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모두 33명의 학생들이 등록금 전액을 수혜받았다. 학업 성과와 향학열이 뛰어난 영어대학 학생에게 지급되는 구자철 장학금 1억원 돌파는 평소 적극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구자철 회장의 나눔 정신을 뒷받침해준다. 구자철 에스코홀딩스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활 에너지 기업을 이끌고 있으며, 가스 사업부터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까지 선도해 은탑산업훈장, 자랑스러운 외대 인상을 수상했다.

2014년 이후 1천만 원 이상 기부자 전당		
성명	기수	기부액(원)
강덕영	7기	202,440,000
문재영	13기	100,000,000
김인철	18기	40,139,400
최현규	10기	20,000,000
배찬	9기	12,000,000
안성기	12기	10,000,000
박승관	18기	10,000,000
김태식	8기	10,000,000
신광순	11기	10,000,000

### 한국외대 ROTC 총동문회 기부액

2014년부터  
각종 ROTC 장학금 및  
도서관 건립기금 등 기부

= 총 40,320,000원 기부



### '학교 발전에 기여' 사랑의 손길 펼친 ROTC 동문들

최근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회장(ROTC 7기)의 학교 발전기금 1억원 기부가 화제가 됐다. 그 이전에도 ROTC 장학기금, 도서관 건립기금 등의 기부로 강덕영 회장은 항상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 나눔 정신을 펼쳐왔으며, 총 2억원이 넘는 기부액으로 우리 대학 119 ROTC 동문 기부왕으로 우뚝 섰다. 그 뒤를 이은 화제의 기부왕은 우리 대학 ROTC 13기 동문인 문재영 회장. 문재영 회장은 미래 가치를 창조하는 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오랜만의 학교 방문에 이어 1억원의 귀중한 재원을 희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대학 ROTC 총동문회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4천여 만원에 달하는 ROTC 장학금 및 스마트도서관 건립기금 등을 기부했으며, 우리 대학 ROTC 후보생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며 학교 전체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쓰고 있다.

# Donation News

2019. 6. 1. - 8. 31

## HUFS Donation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KIMCHONKHO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6	100,000
MAGDONGZHI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강규은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2	100,000
강민규	통번역대학원(석) 한·영·독과 13	100,000
강민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9	100,000
강석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고민정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9	100,000
고호석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4	100,000
구민구	자연과학대학 환경학과 02	600,000
권혁준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92	300,000
김남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0	100,000
김남희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97	100,000
김민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일과 13	100,000
김병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3	100,000
김보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06	100,000
김보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4	100,000
김상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0	100,000
김상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4	100,000
김서정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7	120,000
김신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0	100,000
김선형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1	100,000
김선혜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3	100,000
김성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김세라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2	100,000
김세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김승민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6	100,000
김수원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김수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5	100,000
김수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88	100,000
김연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김용경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7	120,000
김우중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79	200,000
김우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김우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김우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3	100,000
김윤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1	100,000
김이선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6	100,000
김정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85	100,000
김주연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5	100,000
김지연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2	100,000
김지우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7	100,000
김지혜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김창진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0	100,000
김태현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2	100,000
김태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1	100,000
김해솔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김향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3	100,000
김혜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13	100,000
나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7	120,000
나하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남윤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도고현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9	300,000
명혜정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08	100,000
박권우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9	1,000,000
박근우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3	100,000
박미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박미애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박사라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8	100,000
박서우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박세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11	100,000
박수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영·불과 06	100,000
박수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박인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7	100,000
박준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박지나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7	100,000
박지현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7	100,000
박진욱	동우컴퓨터학원 컴퓨터과 05	1,000,000
박한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10	100,000
박혜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박희훈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배진성	경원대학원(석) 경영·금융학과 19	5,000,000
배진성	통번역대학원(석) 한노전공 05	100,000
배수진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04	100,000
배영란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8	100,000
백승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4	100,000
변려화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16	100,000
부무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1	50,000
서광관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사회민	통번역대학원(석) 한·영·아과 80	1,000,000
서명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일전공 14	300,000
성나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7	100,000
성소림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89	100,000
송기승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7	120,000
송유진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06	100,000
송정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8	100,000
송근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9	1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신미경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3	100,000
신주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3	100,000
신지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80,000
신한철	법학전문대학원(박) 10	120,000
심영성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0	100,000
심윤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5	100,000
안미라	통번역대학원(석) 한독전공 06	100,000
안미지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06	100,000
안선희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98	100,000
안승훈	통번역대학원(석) 이공계통대학과 88	1,000,000
양보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오우미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오세영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8	200,000
오우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6	100,000
오지혜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6	100,000
오창영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1	600,000
원미화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4	200,000
유수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유수아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96	100,000
유학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91	100,000
윤경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윤환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전공 14	300,000
이가연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이계윤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9	100,000
이기쁨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이길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4	100,000
이나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이덕선	서강대학교 독일어과 58	13,707,100
이도윤	통번역대학원(석) 한·영·일 79	1,000,000
이병덕	아시아경제문화대학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과 69	100,000
이상원	통번역대학원(석) 한노전공 01	100,000
이선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3	100,000
이성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64	1,000,000
이세현	통번역대학원(석) 한영과 09	100,000
이수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85	100,000
이예바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이연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5	100,000
이연희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4	100,000
이요안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5	120,000
이유수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2	100,000
이민선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5	100,000
이일권	교육대학원(석) 교육경영 90	1,500,000
이정순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01	200,000
이정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이종금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3	100,000
이종숙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이지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17	100,000
이지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이지윤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4	100,000
이지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이지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이지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4	200,000
이창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2	100,000
이춘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이태홍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03	480,000
이현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10	100,000
이현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0	100,000
이혜미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4	100,000
임규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8	100,000
임민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0	120,000
임부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3	100,000
임주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7	100,000
장예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6	100,000
장지선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1	100,000
장현주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96	1,000,000
전문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전미연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94	1,000,000
정광수	세계경영대학원(석) 국제금융 00	120,000
정선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8	100,000
정민진	통번역대학원(석) 한독전공 07	100,000
정영희	통번역대학원(석)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82	1,500,000
정희화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2	100,000
조은정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7	100,000
조일선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1	100,000
조장민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14	200,000
지영은	통번역대학원(석) 한불과 08	100,000
지은영	통번역대학원(석) 한사과 08	100,000
최미령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08	100,000
최성도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4	100,000
최수연	통번역대학원(석) 한불전공 16	100,000
최유이	일반대학원(석) 일어일문 04	1,200,000
최이영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96	100,000
최준희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500,000
최혜림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11	100,000
한만영	통번역대학원(석) 한독과 81	100,000
한정은	통번역대학원(석) 한중전공 01	1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허진실	통번역대학원(석) 한중과 12	100,000
홍현주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2	1,200,000
황태식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87	120,000
익영	동문	200,000
GUILLAMET Benoit	외대교수	200,000
김동환	외대교수	1,000,000
김지은	외대교수	100,000
문남권	외대교수	100,000
안인경	외대교수	200,000
이오강	외대교수	100,000
윤경원	외대교수	7,000,000
윤택동	외대교수	4,000,000
이길영	외대교수	1,000,000
정혜연	외대교수	300,000
한학덕	외대교수	1,0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9,000,000
스프링아카데미	동문단체	750,000
프랑스어학부 총동문회	동문단체	9,150,000
학생총동맹	동문단체	3,000,000
한국외대 재직직원동문회	동문단체	407,000
한국외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설기관	7,354,720
ARS	기타(개인)	9,000
남규근	기타(개인)	1,000,000
송영진	기타(개인)	2,000,000
이승상	기타(개인)	4,000,000
차상석	기타(개인)	10,000,000
(사)한국게임산업협회	기타(기업)	5,900,000
(주)다우기술	기타(기업)	6,000,000
(주)드림빅스 21	기타(기업)	1,000,000
(주)세이브	기타(기업)	4,000,000
(주)에드	기타(기업)	3,712,500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기타(기업)	20,00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5,000,000
문화산업(주)	기타(기업)	2,500,000
새한산업(주)	기타(기업)	3,360,500
새우사조상자사무소	기타(기업)	1,000,000
철암건설판매주식회사	기타(기업)	1,713,800
주식회사 마켓디자인스	기타(기업)	1,000,000
카리리영어사	기타(기업)	4,000,000
하이테크놀로지 주식회사	기타(기업)	2,250,000
한국에티카산업진흥원	기타(기업)	500,000
한국유아이드레저주식회사	기타(기업)	100,000,000
한국학술정보	기타(기업)	500,000
틀라코어(주)	기타(기업)	1,000,000
(사)주한글로벌기업 대표자협회	기타(단체)	3,900,000
(재)가승재단	기타(단체)	5,000,000
(재)조중학재단	기타(단체)	2,760,500
(재)케이티그림화날개재단	기타(단체)	4,218,500
(재)한국대학총학생회	기타(단체)	1,000,000
(재)총학생회	기타(단체)	15,000,000
KS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7,000,000
One Asia Foundation	기타(단체)	52,852,500
Translators Association of China	기타(단체)	19,961,562
과천시(재)장학회	기타(단체)	1,500,000
남성장학재단	기타(단체)	10,000,000
대순리교회 수색방편	기타(단체)	20,163,0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6,721,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51,721,000
미래에셋백화주재단	기타(단체)	54,000,0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3,360,500
비오스장학재단	기타(단체)	3,600,000
사단법인 뉴솔루션	기타(단체)	3,9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124,675,000
삼성장학회	기타(단체)	1,800,000
서울장학재단	기타(단체)	42,700,000
성육문화재단	기타(단체)	7,216,000
성윤문화재단	기타(단체)	2,000,000
세이브장학재단	기타(단체)	1,680,25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36,863,000
아스텍피노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인촌기념회	기타(단체)	3,360,5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3,360,500
재단법인 김중기재단	기타(단체)	13,442,000
재단법인 대운강원석장학재단	기타(단체)	4,000,0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4,500,000
재단법인 연명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호반장학회	기타(단체)	1,000,000
경수장학회	기타(단체)	33,313,500
포스코창업재단	기타(단체)	9,836,000
하림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하림총장학재단	기타(단체)	4,12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4,427,500
현대차정몽구재단	기타(단체)	15,976,500
한미유명재단	기타(단체)	37,767,000
형애장학회	기타(단체)	15,122,250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5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붙일하는 곳

점선 선



점선 선

보내는 사람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8.9.2~2020.12.27

동대문우체국  
제40122호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	---	---	---	---





# HUFS-TAD Global Leader Program

글로벌 시장을 내 손 안에 펼치고 싶습니까?  
해외파견 인력을 위해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십니까?

한국외대의 독보적인 외국어-지역학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 최대 기업의 글로벌 인력양성 노하우를 가진 TAD가 결합하여  
귀사에 최적의 인력 육성 솔루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주재원, 법인장 파견 예정자, 해외지역전문가 교육
- 글로벌 리더의 필요 역량 진단, 양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LEADERSHIP ACADEMY



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사회교육원 031-330-4808~10 (주)태드솔루션 02-594-2022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